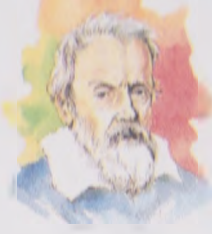




천문의 스승
1 그리스도



항해 탐험가
2 콜럼버스



자연 과학의 아버지
3 갈릴레이



근대 과학의 건설자
4 뉴턴



가곡의 왕
9 슈베르트



동화의 아버지
10 안데르센



노예 해방의 대통령
11 링컨



진화론의 창시자
12 다윈



세균학의 창시자
17 파스퇴르



군중학자
18 파브르



러시아의 문호
19 톨스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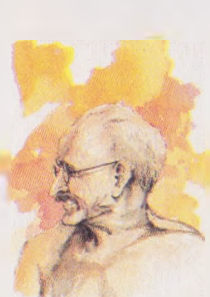
노벨상을 낳은 과학자
20 노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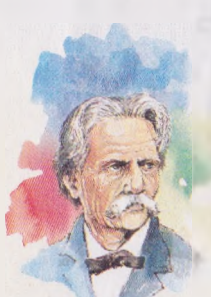
뛰어난 물리학자
25 퀴리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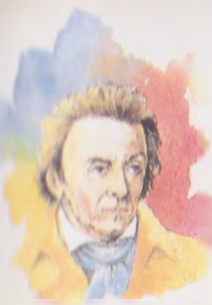
비행기의 발명가
26 라이트 형제



인디아 독립의 아버지
27 간디



밀림의 성자
28 슈바이처



근대 교육의 창시자
[5] 페스탈로치



천재 음악가
[6] 모차르트



유럽을 정복한
[7] 나폴레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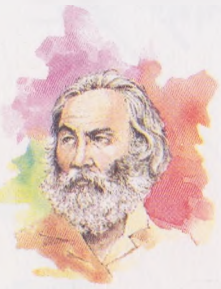
악성
[8] 베토벤



아프리카의 탐험가
[11] 리빙스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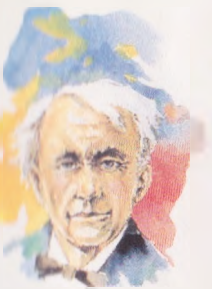
농민을 그린 화가
[14] 밀레



민주주의의 시인
[15] 휘트먼



백의의 천사
[16] 나이팅게일



발명왕
[21] 에디슨



정열의 화가
[22] 고흐



북극 탐험가
[23] 난센



중국 독립의 아버지
[24] 쑨원



천재 물리학자
[29] 아인슈타인



여류 교육가
[30] 헬렌 켈러



흑인 가수
[31] 마리안 앤더슨



뉴 프런티어의 가수
[32] 케네디

기 증 자	
학교이름	서울 <u>석촌</u> 국민학교
학 년 반	제 <u>ㄴ</u> 학년 2. 반
이 름	<u>장 인 창</u>

세계판/소년소녀 위인전기 10

안데르센

10002668

글 신 경 림
그림 박 원



(주)금성출판사



머 리 말

오늘날 안데르센이라는 이름은 세계 각국의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냥 파는 소녀》《미운 오리 새끼》《그림 없는 그림책》등 수많은 그의 동화는 못 사람들에겐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1805년, 덴마크의 오텔세에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역경을 이겨 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꾸밈없는 사랑과 진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동화는 어린이들에



게 꿈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자서전에서

“내 생애는 참으로 기복이 많아서,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그의 동화와도 같았던 생애에 관한 이
야기와 그가 지니고 있던 아름다운 생각들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신앙심이 깊으며 마음이 깨끗했던 안데
르센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동안, 동화와는
또 다른 뜻의 교훈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동화를 써 왔
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본문 150쪽에서)





차 례

절망하지 않는 소년	8
가난한 구둣방집 아들.....	15
행복한 한스	21
정신이 이상해진 할아버지.....	29
학교가 싫어져서	36
가없는 아버지	43
배우가 되려고	52
코펜하겐으로.....	59
찾아온 행복의 여신.....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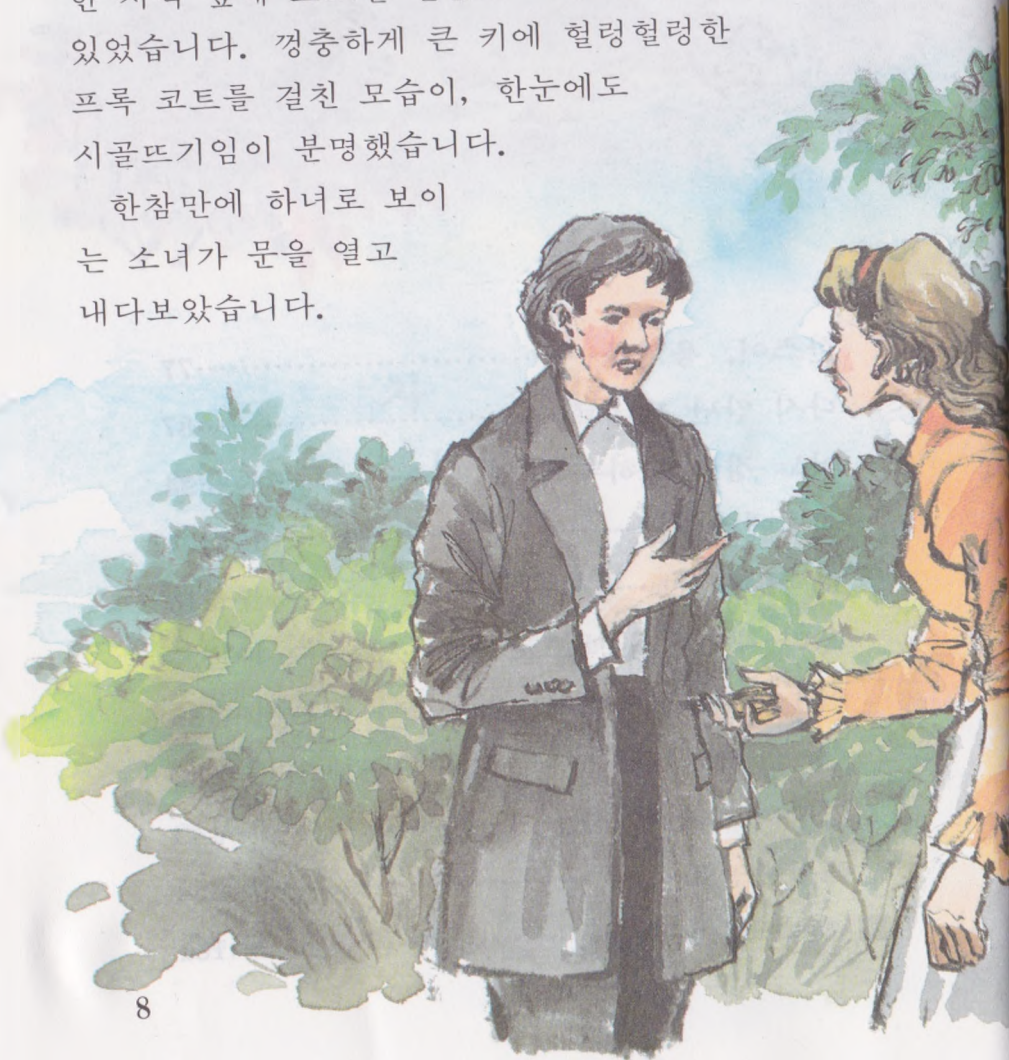
한스여, 용기를.....	77
다시 만난 테네르.....	87
어느 정월 초하루의 일	94
시인에의 길.....	104
다락방에서	118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126
어두운 파도 속에서	135
《즉흥 시인》과 《인어 아가씨》.....	142
영광의 오펜세 시	149
해설 · 연표	154
■ 학습 인명 사전.....	161



절망하지 않는 소년

1819년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서울 코펜하겐의 번화가에서 좀 떨어진 골목, 한 으리으리한 저택 앞에 초조한 얼굴로 서서 벨을 누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경충하게 큰 키에 헐렁헐렁한 프록 코트를 걸친 모습이, 한눈에도 시골뜨기임이 분명했습니다.

한참만에 하녀로 보이는 소녀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어머, 아직까지 아침도 못 먹은 것 같네? 자, 이걸 주세요.”

마음씨 착한 하녀는 얼굴에 상냥한 웃음을 띠면서 6실링의 돈을 소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하녀는 소년을 거지로 안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당황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서면서 더듬거렸습니다.

“저 그런 게 아니라…….”

“자, 괜찮아요. 어서 받아요.”

소년이 너무나 당황해서 우물거리는 동안에 하녀는 어느 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년은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돈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거지로 보였다는 데 대한 서글픔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한 번 벨을 눌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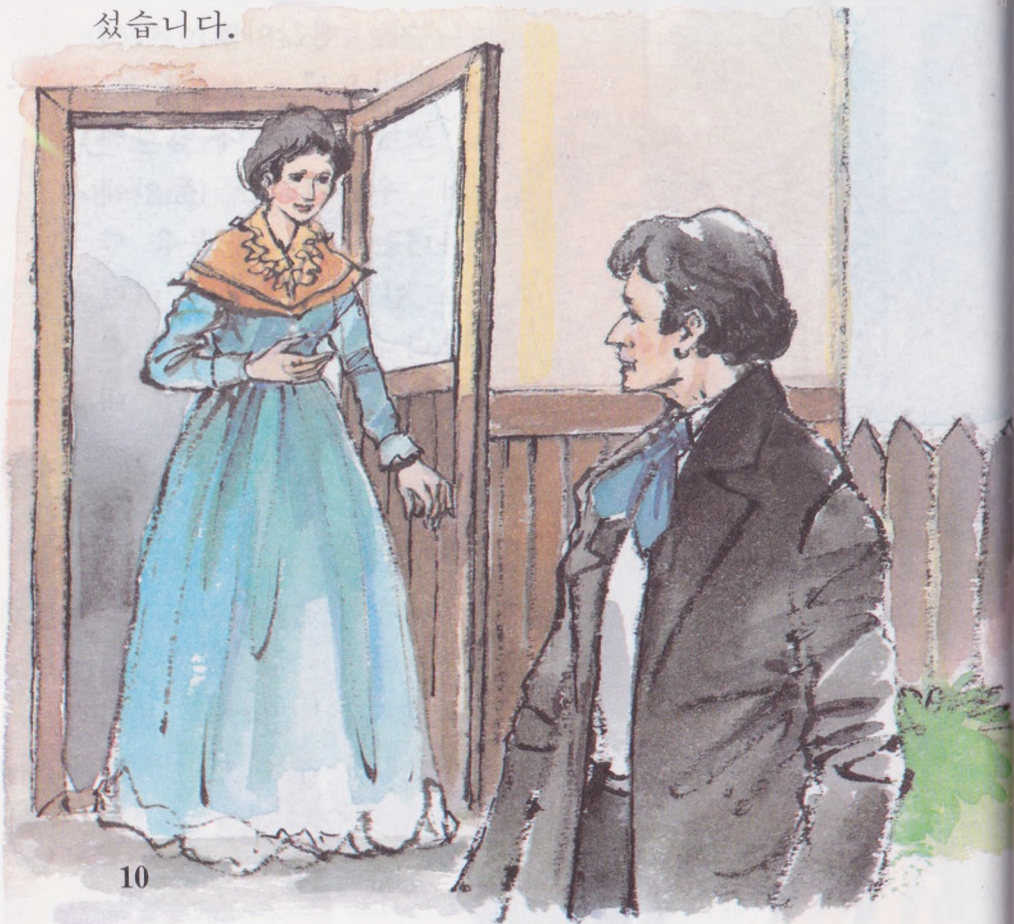
그의 주머니에는 유명한 무용가인 이 집 주인에게,
그를 추천하는 소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녀가 다시 나와서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텐세에서 온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
고 합니다. 샤르 부인을 뵙고자 하는데요. 여기 편
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리 들어와서 기다려요.”

편지를 받아 든 하녀는 한스를 호화스러운 저택의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곧 샤르 부인이 방으로 들어
섰습니다.





“당신이 배우가 되고 싶다고요?”

아름다운 샤르 부인은 한스의 몸매를 아래위로 훑어 보며 물었습니다.

“네, 배우가 되려고 혼자 오덴세에서 왔습니다.”

한스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좀 보여 주지 않겠어요?”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스는 혼자서 아주 열중하여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샤르 부인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
습니다.

‘가없게도, 이 소년
은 머리가 돌아 버
린 게 틀림없어. 불
쌍도 하지.’

샤르 부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녀를 불러 문을 열
고는 한스를 내쫓았습
니다.

한스는 눈앞이 캄캄
했습니다. 자기 자신
은 여태껏 배우가 될
소질이 풍부하다고 자
랑스럽게 생각하고 있
었는데, 샤르 부인이
보고는 한낱 미치광이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한스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의지가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걸고 있는 동안에 다시 용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좋아,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지. 곧바로 극장 지배인에게 가 볼 수밖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한스는 왕립 극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키가 경충하게 크고 비쩍 마른 한스의 모습을 보고, 지배인은 고개를 옆으로 젖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너무 말라서 배우로는 어울리지 않네.”

“지금부터 살이 찌도록 하겠습니다.”

“아냐, 아냐. 소용 없어. 배우란 것이 아무나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냐. 더구나 학문이 없으면 좋은 배우가 될 수 없는 거야. 자, 돌아가 봐요.”

극장을 나온 한스는 이제 앞길이 꼭 막힌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한스는 한참 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훌륭한 배우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맹세한 한스 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슬픔을 머금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차라리 죽어 버릴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고향에 있는 어머니나 할머니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 실망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는 연극이라도 보면서 힘을 내자.’

주먹을 꼭 쥐며 다시 마음을 다져먹은 한스는 극장을 향해 거리를 두벅두벅 걸어 내려갔습니다.





가난한 구둣

방집 아들

동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오덴세라는 고장에서 가난한 구둣방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방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은 아버지의 작업장이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한스의 식

안데르센의 생가(왼쪽 앞건물)



당이며 침실이기도 했고, 그의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한스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 속에서, 이 집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구두를 만드는 데 쓰는 도구와 아버지가 만든 나무 침대, 그리고 내가 자는 손바닥만한 작은 침대, 이것만으로도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이 단칸방이 어릴 적에 내가 살던 집입니다.

벽에는 여러 장의 그림이 걸려 있고, 좁은 부엌의 찬장에는 접시가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부엌에서 층계로 지붕으로 오를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이웃집과의 사이에 있는 흙통 위에 흙을 담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정원이에요 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자 정원에 양파도 심고 파슬리도 심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한스가 얼마나 조그마한 집에서 자랐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작품 가운데 하나인 《눈의 여왕》에는, 이 집과 비슷한 집이 나옵니다. 지붕 위의 마당에서 두 아이가 노래도 부르고 그림책도 보며 놀다.

한스도 어릴 적에 이 곳에서 책도 읽고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기도 하며 꿈을 기르곤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가난한 집 태생이었지만, 아버지보다 두 살 위인 어머니는 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스가 자란 뒤에도 어머니는 가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어 한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엄마가 아직 어렸을 때의 일이란다. 네게는 외할아버지가 되지만, 엄마에게는 아버지가 되지. 하루는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좀 얻어 오라고 시키는 거야.”

“거지가 되란 말인가요?”

“그래. 엄마더러 거지 노릇을 하라는 거였지.”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거지 노릇을 하셨나요?”

“그렇지만 이 엄마는 아무래도 거지 노릇은 할 수 없었던단다. 아버지 눈을 피해 집을 나와서는 오덴세 강에 놓여 있는 다리 밑에서 울기만 했단다.”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래. 하루 종일 고픈 배를 움켜쥐고 말이다.”

그 때마다, 한스는

‘불쌍한 어머니!’

하고 마음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꼭 행복하게 해 드려야지.’

한스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난 집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에 다닐 형편은 못 되었으므로, 구둣방에 들어가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하는 소년으로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책읽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서는 그를 상급 학교에 보내어 공부를 시키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상급 학교에 갈 것을 단념하고, 구둣방에 들어가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나 우울했습니다. 상급 학교에 가서 자기의 타고난 재능을 살렸어야 했다는 뉘우침은, 아버지를 좀체로 불행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스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란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라틴 어 학교의 학생이 아버지의 구둣방으로 구두를 맞추러 왔습니다. 라틴 어 학교란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학교로서, 중류 이상의 부유한 집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구두를 맞추기 위해 발을 재고 난 다음, 교과서를 꺼내 보이며 즐거운 듯 학교 이야기를 재미있게 늘어놓았습니다.

학생이 돌아간 뒤, 아버지는 옆에 서 있는 한스를 조용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아, 돈만 있었으면 나도 라틴 어 학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한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꺾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한스의 눈에도 슬프게만 보였습니다.



행복한 한스

한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울보였습니다. 너무 울어 대므로, 그의 울음소리만 들리면, 이웃 사람들은
“구둣방집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군!”
하고 눈살을 찌푸리기까지 했습니다.



한스를 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그는 계속해서 울어 댔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는 굉장한 울보로군. 거기다 자 울음소리 꼭 고양이 같아.”

하고 목사님마저도 언짢게 말하였습니다.

“어쩌면 목사님마저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하고 어머니는 섭섭
해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 상할 것

없어요. 어려서 많이

울면 커서 노래를 잘 한다니까요.”

교회에 함께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때에야 좀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요? 커서 훌륭한 가수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한스는 모두들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울보이면서도 몸만은 무척 튼튼했습니다. 잔병도 별로 없이 무력무력 자랐습니다. 게다가 장난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스를 보살피는 일도 여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 여기저기에 구두를 만드는 연장이 널려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한스가 가지고 놀기에는 위험한 것들뿐이었습니다.

“앗, 위험해! 그걸 가지고 놀면 안 돼요.”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한스의 뒤를 쫓았고,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연장을 이리저리 치우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한스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귀족의 아들
부럽지 않게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내 어릴 때에 비하면 너는 어느 백작의 아들이나
부잣집 도련님도 부러울 게 없구나.”

어머니는 종종 한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는 글씨도 읽지 못할 만큼 무식했지만, 몸만은 더없이
튼튼하고, 게다가 부지런하며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꼭 아기를 위해서만 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웃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그런 남편이 은근히 자랑스럽기조차 했습니다.

“네, 우리 집 주인은 한스밖에 몰라요.”

일요일에는 구둑방도 놀았습니다. 노는 날이면 아버지는 한스를 위해서 장난감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 주기도 하면서 함께 놀았습니다. 또 밤이 되면 큰 소리로 프랑스의 시와 라 폰텐의 우화, 《아라비안나이트》 등을 읽어 주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한스는 행복했습니다.

또 일요일이면, 자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가 자선 병원 뜰에 핀 꽃을 꺾어 들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귀여운 손자 한스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스의 할머니는 꽤 오래 전부터 자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시골에서 제법 잘 살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약한 가축의 전염병을 만나 소, 돼지, 닭 등을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불행스런 일이 밀어닥쳤습니다. 불이 나서 커다란 집이 타 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불행을 이겨 낼 만큼 마음이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신이 이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할아버지와 어린 아들(한스의 아버지)을 이끌고 오덴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자선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신은 그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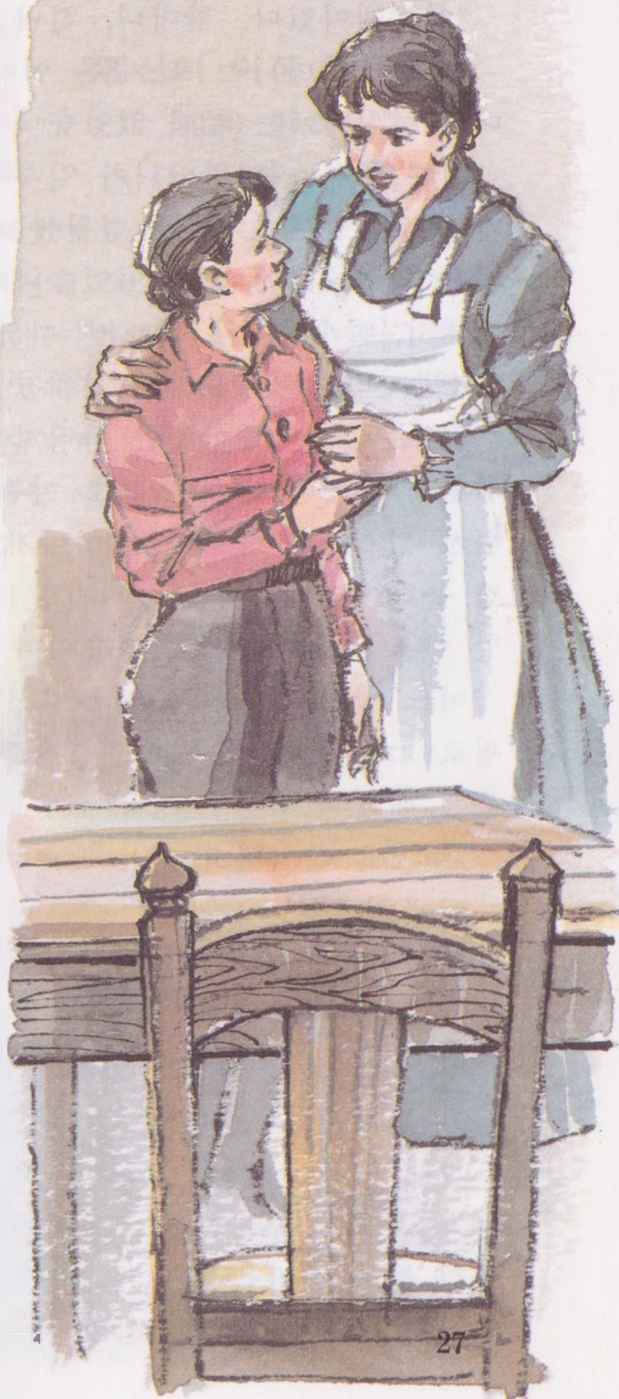
한스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되어도 할머니는 어찌다 못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한스는 하루 종일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한스는 일요일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꺾어 오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내 선물은 항상 똑같은 꽃뿐인데, 네가 좋아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할머니는 꽃을 좋아하는 손자가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도 무척 잘 하였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모르는 옛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 재미있다. 할머니, 하나 더 해 줘요.”

그러면 할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 주었고, 할머니의 이야기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한스는 할머니가 일하는 자선 병원으로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자선 병원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가엾은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커다란 방에서 뜨개질이나 바느질 따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이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한스는 책을 좋아하는 아버지에게서 듣는 게 많았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참으로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한스는 누구에게나 이야기도 잘 해 주고 노래도 잘 불러 주었기 때문에 의지할 곳 없는 할머니들은 정말 한스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를 따라 자선 병원에 간 한스는 분필로 그림을 그려 가며, 그 곳 할머니들에게 사람의 몸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자라고 하는데,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곳이에요.”

할머니들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도 영리할까? 그렇지만 너무 영리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데.”

하고 걱정스럽게 말하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한스를 박사, 또는 귀여운 학자라고 불렀습니다. 한스도 할머니들이 자기를 이렇게 불러 주는 것이 조금도 싫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이상

해진 할아버지

한스는 어려서는 울보였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자라면서 울지 않게 되었고, 차츰 장난도 하지 않고 조용한 아이로 되어 갔습니다. 별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계집아이처럼 혼자서 인형을 가지고 노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섯 살쯤 되면서부터는 인형에 옷을 만들어 입히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색종이를 오려 놀잇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를 닮았군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스의 아버지도 이웃 사람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또는 실없는 소리를 주고받는 그런 사
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혼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한스는
그런 아버지를
따은 것이었
습니다.



특히, 한스가 좋아하는 일은 아버지가 만들어 준 인
형에 옷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어찌나 솜씨가 훌륭
했던지 어머니마저도 아버지에게

“한스는 커서 재단사가 되려나 봐요.”
라고 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한스의



이 솜씨가 할아버지에게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은근히 걱정되는 일
이 있었습니다.

‘미치광이네 집에 미치광이가 난다는데…….’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할아버지는 정신이 이
상해진 분이었습니다.

‘우리 애도 정신이
이상해지면
그럴 리야 없겠지
만, 할머니 말을
들으면 할아버지
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전염
병으로 가축을 모
두 잃고 나서 정
신이 이상해진 거
라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걱정을 하곤 하였습
니다.

할아버지는 정신
이상자라고는 하나,
난폭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루 종일
혼자말로 무엇인가
를 중얼거리는 것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들은



“저 할아버지는 괴짜야.”

“사시사철 혼자서 무엇을 중얼거리고 있는지.”

“아니,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야.”

하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기분이 언짢아서 할아버지가 놀러 와도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한스가 자기의 손자라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애야, 넌 어디 살지?”

하고 한스에게 말을 걸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스는 너무도 놀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친손자도 못 알아보는 할아버지가 가엾어서 한스는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러는 한스에게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신 이상이 되기 전까지의 일은 모두 기억하나, 그 뒤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는 오덴세의 교외에 방을 하나 빌려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나뭇조각으로 이상한 모양의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형은 동물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거나 날개가 달린 짐승들로서, 지금까지 아무도 본 일이 없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만들어지면, 할아버지는 바구니에 넣어서 옛날에 살던 시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야, 재미있는 할아버지가 오셨다!”

“장난감 주세요.”

“할아버지, 저도 주세요, 저도요.”

마을 아이들이 할아버지 둘레로 모여듭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구니 속에서 장난감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바구니에 과일이나 채소를 넣어 줍니다. 커피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덴세의 아이들은 짓궂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면 그 뒤를 줄줄 따라다니며 놀려 댁니다.

“헤이, 미치광이!”





“바구니에 무엇이 잔뜩 들었어!”

“빼앗자, 빼앗아!”

“여봐요, 할아범!”

한스는 이러한 할아버지가 가없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스는 그럴수록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집에서 혼자 노는 조용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학교가 싫어져서

어느 해의 일이었습니다. 한스는 어머니를 따라 들로 이삭줍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도 여럿이 함께 갔습니다.

이삭줍기란 추수가 끝난 뒤,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더러 볼 수 있었던 일로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이삭을 주워다가 밥을 해 먹는 것입니다. 한스네도 가난하였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면 어머니와 한스는 으레 이삭줍기를 나가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한스가 한참 열중해서 이삭을 주워 자루에 넣고 있는데, 밭의 임자가 달려왔습니다. 그 밭 임자는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큰일났네.”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밭 임자는 검붉은 얼굴에 잔뜩 노기를 띠고 휘휘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함께 이삭을 줍던 사람들은 자루도 내팽개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나막신을 신고 있어서 빨리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다가 마침내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나쁜 녀석!”





밭 임자는 금방이라도 내리칠 듯이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누가 이삭을 주우라고 했어? 맛 좀 보라!”

한스는 울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밭 임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때릴 테면 때리세요. 하느님이 내려다보고 계세요. 내버릴 이삭을 줍는 일이 뭐가 나빠요?”

이 소년의 맹랑한 태도에 밭 임자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내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네 이름이 뭐지?”

“한스예요.”



“참 똑똑하구나! 자, 이걸 가지고 가거라.”

발 임자는 한스에게 동전까지 한 닢 주었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 모양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 한스는 참 이상해요. 누구든지 저 애의 얼굴만 보면 화를 내지 않게 되는 모양이에요.”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한스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서도 조금도 비뚤어진 곳이 없었습니다. 밝고 정직한 소년이어서 누구에게나 귀움을 받았습니다.

이 무렵부터, 한스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라고는 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아주 규모가 작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에 있는 나이 많은 여선생이 가르치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선생은 툭하면 화를 내면서, 회초리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한스는 학교가 싫어졌습니다.

“싫어, 싫어요! 이제 저 따위 학교엔 안 갈래요.”

한스는 아침이면 으레 울면서 이렇게 떼를 썼습니다. 여선생의 회초리가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도 한스의 고집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싫은 학교라면 하는 수가 없구나. 학교를 그만두는 수밖에.”

어머니는 한스를 이번에는 칼스텐 선생의 학교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가난뱅이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였는데, 한스는 제일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칼스텐 선생으로부터 항상 귀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는 난폭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한스를 못살게 구는 아이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야, 구둣방집 아들!”

“너희 할아버지는 미친 사람이지?”



얇전한 한스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겁쟁이!”

“멍청이!”

하고 놀려 대는 것이었습니다. 한스는 학교에 가면 정말 멍청이가 된 듯 한 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서도 머리가 멍해서 선생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스는 또다시 학교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어 학교 옆을 지나다 보면, 그 곳에서는 영리해 보이는 학생들이 즐거운 듯 놀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책을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렸습니다.

“아아, 이런 학교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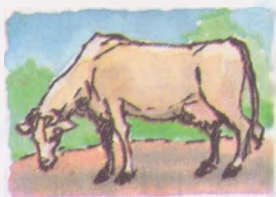
매일 그 앞을 지나면서, 한스는 라틴 어 학교 학생들이 부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라틴 어 학교, 지금 한스의 심정도 꼭 옛날의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면, 아버지는 일에 매달려 찢찢맙니다. 아버지는 요즈음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지 못하고 구두 수선공이 되어 있는 자신이 미워져서 일이 하기 싫은 것입니다.

“아, 미칠 것 같다.”

아버지는 머리를 싸 쥐고 신음을 합니다.





가엸은 아버지

그 얼마 뒤의 일입니다. 아버지에게 꿈 같은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어느 돈 많은 부인이 아버지를 전속 양화공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해 온 것입니다. 게다가 월급 이외에도 저택 안에 있는 작은 집을 살림집으로 주고, 암소도 한 마리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을 가꾸기로 하자. 마당 가득히 꽃을 가꾸는 거야.”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쇠죽을 쑤겠어요.
포동포동 살찌게 할 자신이 있어요.”

하고, 한스도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집에 채용되기 전에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무용 구두를 한 켤레만 들어,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부인이 말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손수 가죽을 사다가 꼬박 이틀이 걸려 무용 구두 한 켤레를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구두였습니다. 아버지는 흠족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만하면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겠지.”

아버지는 구두를 손수건에
잘 싸서 들고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무용 구두를 신어 보려 하지도 않고
“어머, 이렇게 초라한 구두를 어떻게 신지요? 안
되겠어요. 가지고 돌아가세요. 당신을 채용하다니,
어림없는 일이에요.”

하면서 구두를 뺑개쳐 버렸습니다. 당초부터 부인에게
는 아버지를 채용할 뜻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칼을 꺼내서 부인의 눈앞
에서 구두를 갈기갈기 찢어 버렸습니다.



“나쁜 사람이야. 내가 속은 거야!”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쁜 부인이군요.”

어머니도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으로 한스네의 즐거운 꿈은 무참히 깨지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이 있는 뒤부터 아버지는 더욱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말고 멍하니 창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훌쩍 밖으로 뛰어나가서는 오랫동안 거리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구둣방은 때려치워야겠어. 군인이 되기로 했어.”
“군인이 되다니요?”
너무도 놀라서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응, 군인이 되는 거야.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와야지.”

세상살이에 뜻을 잃고 실증을 느낀 아버지는 마침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렵 덴마크는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한편이 되어 독일과 전쟁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많은 군인을 뽑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한스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기어이 군대에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오텐세의 연대에 배속되어 1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전선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가는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둥둥 둥둥.”

연대에서 북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또 나팔 소리도 들려 왔습니다.

이 날, 한스는 홍역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스의 머리맡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빨리 낫거라. 아버진 높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



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한스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없어라, 우리 아기. 이대로 죽어 버리는 것이 널
위해선 오히려 행복할는지도 모르지.”

“웬 방정맞은 소리야!”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아버지의 눈도 역시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훗날, 안데르센은 이 날의 일을

「태어나서 처음 당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1813년, 한스가 여덟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이후부터 집안은 갑자기 쓸쓸하고 슬
퍼졌습니다. 살림도 더욱 어려워져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하는 날조차 종종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간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소속된 연대가 홀슈타인이라는 곳에 이르
렀을 때, 전쟁은 어이없게도 끝나 버렸습니다. 프랑스
의 나폴레옹이 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1814년, 아버지는 오덴세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공을 세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고 하던 아버지의 꿈은 또
한 번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우울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일
도 열심히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무리
한 군대 생활로 인하여 몸
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잠을 잘 때면
심한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전진 앞으로!”

“나폴레옹 만세!”



한밤중에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은 더욱 쇠약해져서 구둣방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병석에 눕게 되었고, 얼마 뒤에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구둣방 한 구석에서는 귀뚜라미가 처량하게 울어 대고, 아버지의 싸늘한 시체는 나무 침대 위에 누여져 있었습니다. 한스와 어머니는 너무도 서러워서 밤새도록 끌어안은 채 잠도 자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때, 한스의 나이는 열한 살이었습니다.





배우가 되려고

이제 한스는 어머니와 단 둘이 되고 말았습니다. 책을 읽어 주고 인형을 만들어 주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이웃으로 세탁 품을 팔러 갔습니다. 커다란 바구니에 가득 찬 세탁물을 오덴세의 찬 개울물에서 빠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빨갛게 부풀고 쪽쪽 갈라졌습니다.



한스는 종일 집에서 지냈습니다. 혼자서 인형의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인형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또 하나, 한스가 즐기는 것은 연극의 프로그램이나 줄거리를 읽는 것입니다.

이 연극의 프로그램과 줄거리는 오덴세 극장의 융케르라는 사람에게서 얻어 옵니다. 한스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몇 번 아버지를 따라 연극을 보러 오덴세 극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한스에게는 극장이 더없이 즐거운 곳이 되었고, 두세 번 가는 동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융케르와도 제법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차츰 한스는 프로그램이나 줄거리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연극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작품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마법사며 공주며 난쟁이가 나오는 연극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하늘을 나는 새도, 창에서 보이는 너도밤나무도 모두 재미있는 연극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한스의 집 가까이엔 분케프로드라는 목사의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인은 목사인 남편이 죽은 뒤로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한스가 매일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러 오도록 불러 주었습니다.

분케프로드 부인과 그녀의 여동생은 모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스가 이런 교양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동생은 종종 죽은 형부에 관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시를 잘 쓰셨어.”

그리고는 시에 대한 이야기며,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며
《리어 왕》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스가 가장 놀란 것은 이 집의 서재였습니다. 서재
에는 책이 천장까지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굉장한데요!”

한스는 눈이 둥그래져서 감탄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빌려 줄 테니 갖다 읽어요.”

한스는 아버지를 닮아서 본디부터 책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방금 들은 셰익스피어의 책을 빌려다가는 정신 없이 읽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읽은 어느 책보다도 재미있고 슬픈 연극 이야기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극을 읽고 난 한스는 스스로 극을 만들어 이웃 사람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마치 배우가 된 기분으로 배우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대사를 외는 데 여간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한스는 사내 아이로는 빼어날 정도로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이나 시를 읽어도, 또 노래를 불러도, 듣는 사람들 모두를 감탄시켰습니다.

“저 아이는 훌륭한 배우가 될 거야.”

“음악가가 되어도 성공하겠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한스를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한스의 나이도 어느새 열네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 아이도 장래를 생각해야지…….’



어머니는 차츰 **한스**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한스야, 너는 재단사가 되는 것이 어떻겠니? 인형 옷도 잘 만들고 하니, 재단사가 되면 훌륭한 기술자가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전 재단사는 싫어요. 배우가 되겠어요.”

“한스야, 그런 꿈 같은 소릴 하면 사람들이 웃는다. 재단사가 되면 큰 가게를 가지고 사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니?”

“싫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배우가 되겠어요.”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번도 어머니의 말에 맞서 본 일이 없는 한스가 막무가내로 배우가 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배우가 무엇이 좋다는 거냐?”

어머니는 연극이라고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막연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직업이라고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재단사가 좋단다. 큰 가게를 가지고 일꾼을 몇 사람씩 거느린 재단사가 되어 봐라. 그렇게 되면, 나도 이웃집 세탁일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되지 않겠니?”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싫다고만 버틸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배우가 되겠다는 꿈은 아무래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코펜하겐으로

그 무렵에 어머니는 재혼을 했습니다. 역시 구둣방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어머니보다는 나이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새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한스의 친아버지와는 달리 마음이 그다지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르고 주정쟁이인데다가 노름까지 좋아하는 건달이었습니다.



착실하고 부지런한 한스를 괜히 싫어했고, 한스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

새아버지가 이렇다 해서 맞대 놓고 싸움질을 할 한스는 아니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새아버지와 직접 대하는 일을 피하면서, 어머니에게만은 더욱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새아버지와 한스 사이에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그지없이 불쌍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스에게도 견신례를 받아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견신례란 크리스트 교의 의식으로서, 이 의식을 끝내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스는 그 준비로서 크리스트 교의 가르침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잠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웃 친구들도 여럿이 함께 갔습니다.

모두들 훌륭한 집안의 아이들이어서, 심술궂은 아이들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한스는 여기서는 놀림을 받을 걱정이 없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생활이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스는 본디 남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서 책을 읽거나 공상하기를 즐기는 소년이었습니다. 거리를 거닐다가도 한스는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눈을 감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눈이 나쁜 모양이야.”

공상을 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길을 가는 한스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한스이고 보니, 교회에서도 쉽게 친구가 생기지 않았 습니다. 더구나 대부분 이 부잣집 아이들이어 서 가난뱅이인 한스를 친구로 사귀기를 달가 워하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스에게 친절하게 대 해 주는 아이가 한 명 있었 습니다. 테네르라 는 소녀였 습니다.

어느 날, 테네르는 예쁜 꽃다발을 한스 에 게 주었 습니다.

“자, 이거…….”

“응? 내게?”

너무나 뜻밖의 일이 라, 한스는 기쁜 마음 을 미처 무어라고 말 해야 좋을지 몰라 얼 굴이 빨개진 채

“정말, 정말 내게 주는 거야?”



하고 더듬거릴 뿐이었습니다.

한스는 마치 춤을 추듯 힘차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기분 좋다! 내게도 친절하게 대해 주는 친구가 있어.”

한스는 지금까지 학교에서고 어디에서고 아이들에게 놀림만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 주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테네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목소리는 여자처럼
고우니까 배우가
되면 성공할
거야.”



테네르의 이 칭찬은 다른 누구의 말보다도 한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한스는 테네르에게 그전 해에 왕립 극장의 극단이 이 곳에 왔을 때, 엑스트라로 잠깐 무대에 섰던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견신레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 견신레가 끝나면 재단사가 되겠다고, 한스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배우가 되겠다는 큰 꿈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저히 재단사가 될 수는 없어요. 코펜하겐으로 가서 배우가 되겠어요.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무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서 한스는 다시 어머니를 당황하게 했



습니다. 그는 코펜하겐으로 가서 배우가 되는 수련을 쌓겠다고 굳게 결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싫어하는 새아버지 밑을 떠나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스야, 가난뱅이 주제에, 더구나 어린 몸으로 그렇게 멀리 가서 어찌겠다는 거니?”

“아네요, 어머니. 옛날부터 훌륭한 사람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코펜하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어머니도 마침내 한스의 고집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네가 정 배우가 되고 싶다면 난들 어찌겠니? 그렇지만 나는 아무래도 네 일이 걱정스럽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스가 혼자서 코펜하겐으로 간다는 소문이 이웃에 퍼졌습니다.



“뭐, 저런 꼬마가 혼자서 코펜하겐에 간다고?”

“어림없는 소리야. 그걸 허락하는 어머니도 잘못이야.”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야. 한스는 훌륭하게 될 거야. 훌륭하게 되어 오덴세를 빛내 줄 아이야.”

하고 한스의 뜻을 칭찬해 주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무용가인 샤르 부인을 안다면서 자청해서 소개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이것이 한스에게 더욱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코펜하겐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출발은 오후였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마을 밖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꺾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리는 하얗게 세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 없이 한스의 목을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한스야, 힘을 내거라.”

“도착하는 대로 편지하거라.”



한스가 마차에 올랐습니다. 마부가 나팔을 불자, 마차는 흔들거리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스는 힘차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몸조심하세요.”

“한스야, 감기 조심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조심해야 한다.”

마침내 한스가 탄 마차가 산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819년 초가을이었습니다.



찾아온 행복의 여신

한스는 코펜하겐에 닿은 즉시 주머니 속의 편지를 움켜쥐고 무용가 샤르 부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무렵 무용계에서 여왕처럼 군림했던 이 유명한 무용가가 소개 편지 한 장으로 이 불품없이 비쩍 마른 한스를 잘 돌봐 줄 리가 없었습니다.

샤르 부인과 왕립 극장 지배인에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한 한스는, 연극을 구경하면서 가까스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극장에서 나왔을 때는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한스는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외진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느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스는 선 채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하느님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길을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나는 아직 막다른 골목에 이른 건 아니야. 언젠가는 하느님이 나를 도와 주실 거야.’

한스는 또 멈춰 섰습니다. 정말로 불행의 밑바닥에 떨어지면, 하느님께서 그냥 버려 두시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스는 일부러 발에 힘을 주어 변화한 거리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숙박비를 내고 나니까 돈이 1탈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걸로는 오텐세로 돌아갈 수도 없고, 코펜하겐에서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한스는 막막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 자리를 찾아 내지 못한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문의 광고란을 훑어보았습니다. 광고란에

「조수 1명 구함.

목공소.」

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됐다. 가 보자.’

한스는 목공소로 달려갔습니다. 목공소 주인은 즉석에서 한스를 목공소의 조수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터에 가 보니 동료 조수며 다른 목공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들은 시골뜨기 한스를 만만하게 보고 이만저만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덴세의 키다리.”

“자 좀 갖다 줘.”

“야, 거기 있는 게 안 보여!”

“네 눈은 모양으로 뚫어 놓은 거냐!”

“자식, 작대기처럼 길기만 해 가지고.”

모두들 찢고 까불고 떠들어 댁니다. 한스는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힘드는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보 취급해서 놀려대는 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한스는 다시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돈이라고는 1 탈러밖에 없으니, 오늘 밤부터는 잘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 끝에 한스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목소리가 좋다고 했지? 배우가 못 되면 음악가는 될 수 있을는지 몰라. 음악 학교 시보니 교장 선생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한스는 오덴세에 있을 때, 신문에서 이탈리아 사람인

시보니 선생이 음악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득 그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우물쭈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부딪쳐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스는 그 길로 시보니 교장 선생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 날은 마침 시보니 선생 댁에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작곡가 와이제 선생이며, 시인 바게센 선생 등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한스를 만나 보지도 않았겠지만, 마음씨 착한 시보니 선생은 한스가 오덴세에서 왔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보니 선생은 한스를 안으로 맞아 들였습니다.

피아노가 있는 방에 안내되어 들어가니, 손님들이 둘러앉아 있어서 기가 질렸습니다.

“자, 가수가 되겠다고? 그럼, 자네가 좋아하는 노래



를 한 곡 불러 보도록.”

시보니 선생이 말하셨습니다.

한스는 정신 없이 아는 노래를 한 곡조 불렀습니다.

시보니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해 주었습니다.

“잘 하는데, 좋은 가수가 될 수 있겠어. 그렇지만
칭찬받았다고 우쭐하면 안 돼.”

시인 바게센 선생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좋아. 내가 자네를 지도하지.”

시보니 선생은 한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격려
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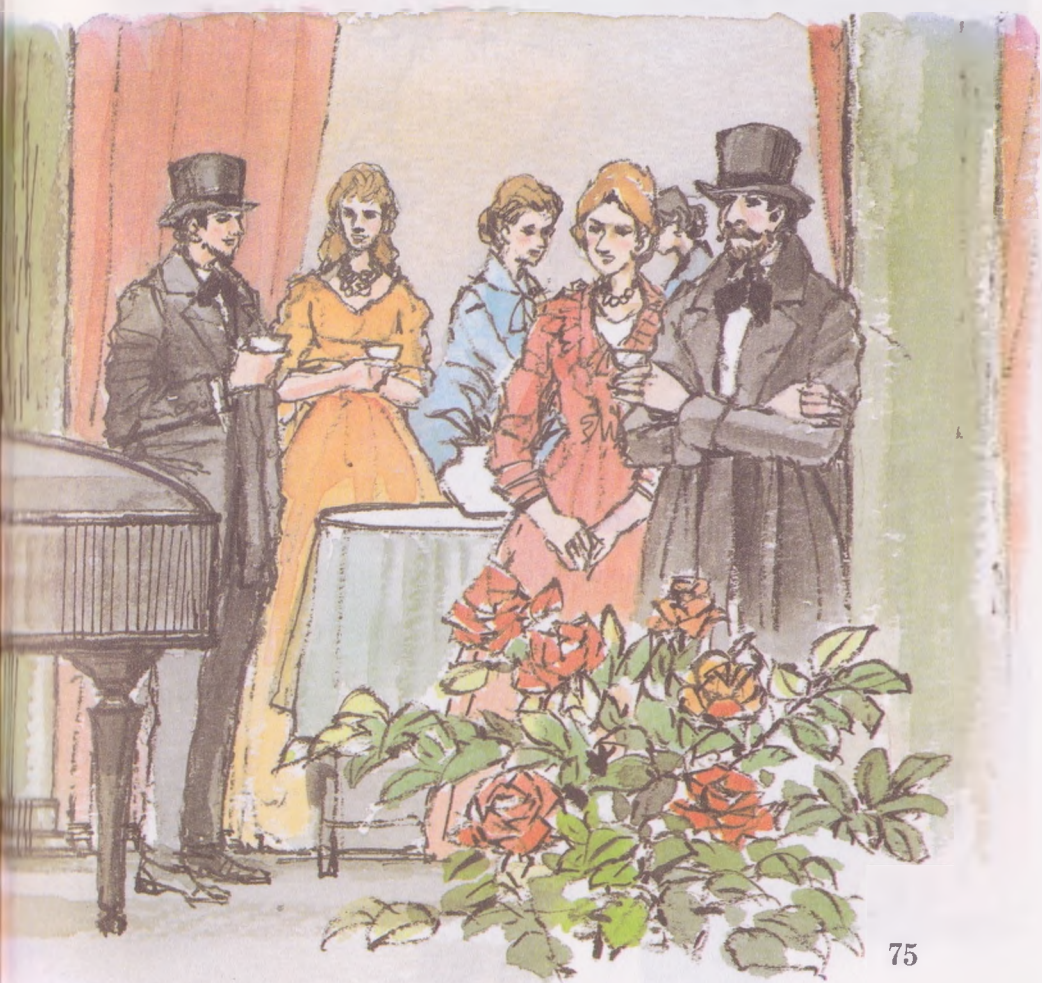


한스는 너무 기뻐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언젠가
읽은 책 속에

‘인간은 불행의 밑바닥에 이르면 하느님이 도와 주
신다.’

라고 써어 있던 구절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한스는 마
음 속 깊이 하느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날 밤, 한스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기뻐해 주세요. 왕립 음악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또 유명한 음악가이신 와이제 선생님에게서도 배우게 되었어요. 생활비까지도 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교장 선생님은 제가 이제 왕립 극장의 가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 세상의 온갖 행복의 물결이 저를 향해 밀려오고 있어요.」

편지를 받아 본 어머니는 한스가 벌써 한 사람의 가수가 되기라도 한 듯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면서, 편지를 들고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스여, 용기를

마침내 행복의 빛이 한스의 머리 위에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보니 선생 댁에 모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한스를 돕기 위해 모두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당장 70탈러가 모였습니다.

더구나 파티가 끝난 뒤, 자기 집으로 한스를 데리고 가서 한스의 형편을 자세히 들은 작곡가 와이제 선생은



“내가 이제부터 네게 매달 10탈러씩 주지. 우선 그
것을 가지면 하숙비가 될 테니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와이제 선생도 한스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에서 태
어났습니다. 오늘의 성공을 이룩하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나날을 겪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 나가니까, 한스
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여겨질 지경이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스는 시보니 선생으로부터는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또 와이제 선생으로부터는 그 밖의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음악의 기초적인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도 공부했습니다.

유럽에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나라에 따라 말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스는 단지 덴마크 어밖에 모릅니다. 아니 덴마크 어라 하지만, 그것도 태어난 오덴세의 사투리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시보니 선생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스는 음악 공부 외에 독일어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뒤에 한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즐거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스는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놀라울 만큼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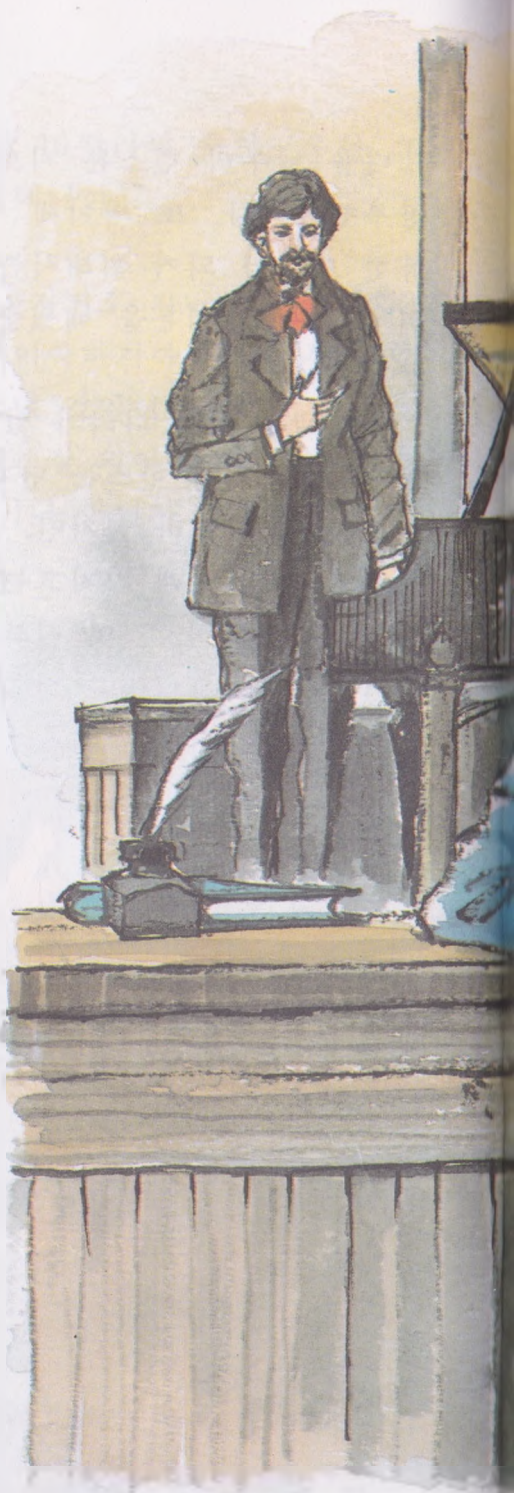
“한스의 기억력은 정말 대단해. 뛰어난 재주야!”

“먼저 공부하는 태도가 훌륭해. 저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될 일이 없지.”

“첫눈에 그가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다고 본 우리의 판단이 옳았어.”

시보니 선생과 와이제 선생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한스의 가슴은 뭉뚱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고 주먹을 부르 쥐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한스는 시보니 선생과 독일어로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보니 선생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한스는 이제는 시보니 선생과 이탈리아어로 이야기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다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희망





에 찬 한스의 노력은 필사적이었고, 배움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9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이 때, 돌연 커다란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목소리가 변한 것입니다.

가수에게는 목소리가 생명입니다. 목소리가 망그러져서는 제 아무리 훌륭한 가수라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한스의 아름다운 소프라노는 이제 그의 목에서 사라지고, 웅덩이 한 거친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이 목소리로는 도저히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변하는 때(변성기)인데다가, 겨울부터 봄까지 너무 허름한 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늘 발이 젖

어 있어서 동상에 걸린 것이 원인이 되어, 목을 해친 것입니다.

시보니 선생은 어느 날 딱한 듯이 말했습니다.

“한스 군,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네. 오덴세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게 자네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한스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멎었습니다. 시보니 선생은 한스에게 다시 시골로 내려가라고 하지만, 그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한스가 세계 제일의 가수가 되리라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꿈을 깨뜨릴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의 꿈을 깨뜨린다는 것은, 어머니를 오덴세 시내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차라리 죽어 버리는 편이 낫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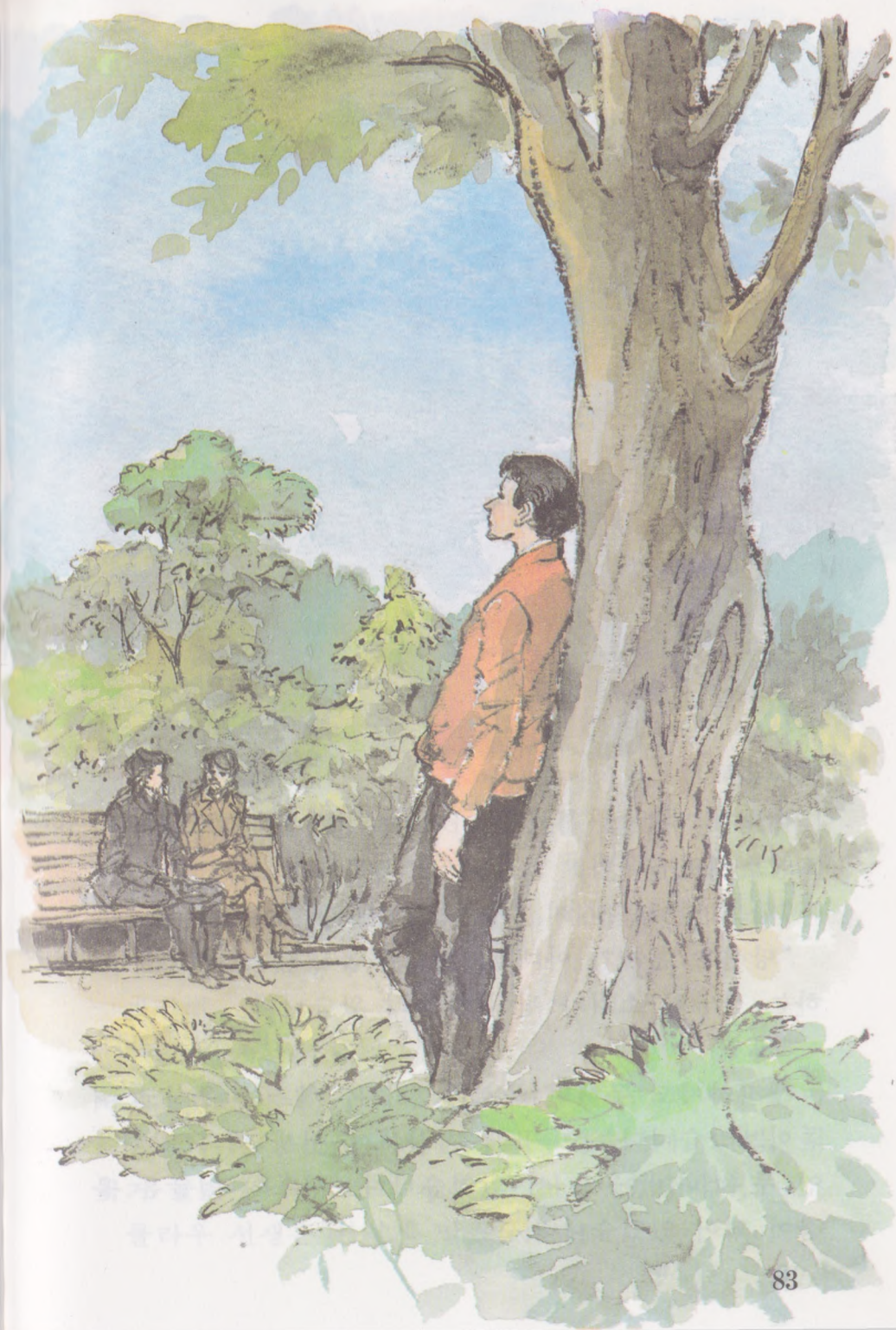
시보니 선생에게서 시골로 내려가라는 말을 들은 한스는 무작정 거리를 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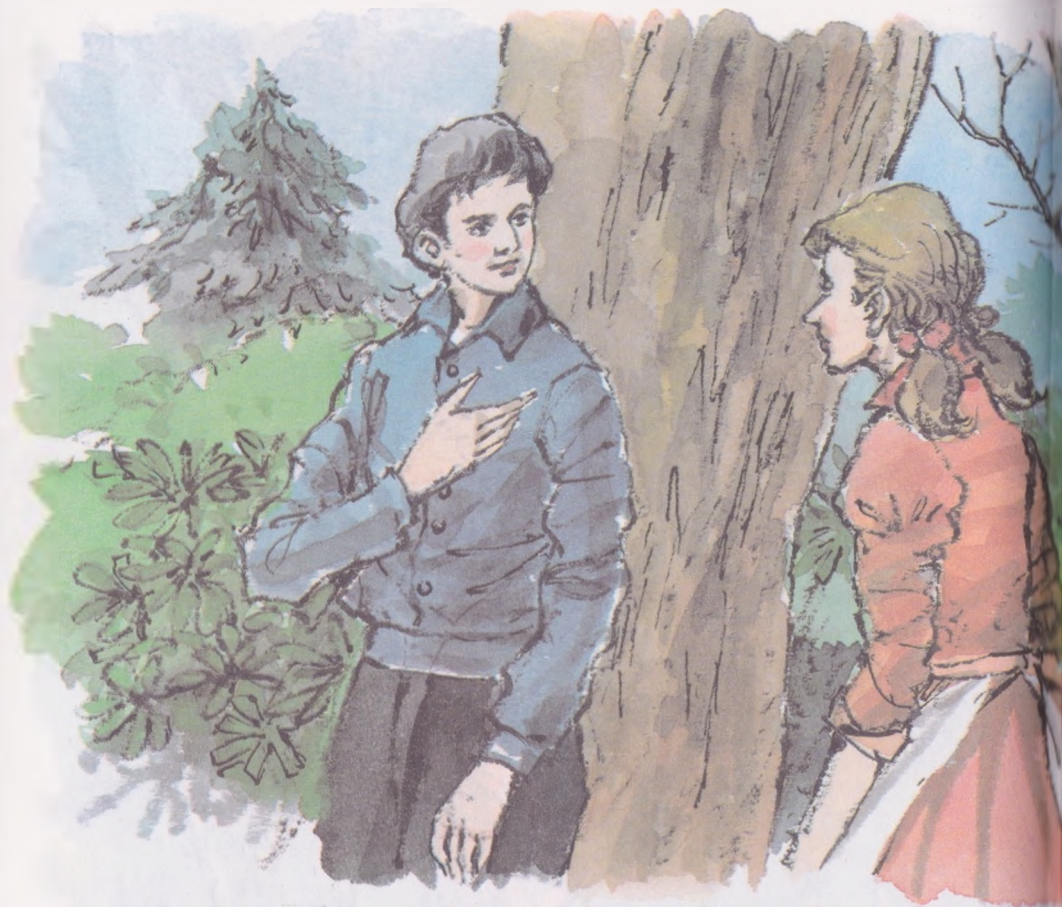
축 처진 어깨에 고개를 푹 숙이고,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9개월 전, 그 때와 조금도 다른 없는 절망에 다시 빠진 것입니다.

‘오덴세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코펜하겐에서는 나에게 먹을 빵도 줄 사람이 없지 않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스는 너도밤나무가 뻥뻥이 들어찬 공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너도밤나무에다 몸을 기대고 새파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수가 될 수 없다면, 배우가 되지.’





어떻게 하든지 희망을 가져 보려고 애쓰고 있는 바로 그 때였습니다.

“한스 안데르센 씨, 기운을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네요.”

하는 상냥한 소리가 뒤에서 들려 왔습니다.

“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목소리입니다. 한스는 무심코 뒤 돌아보았습니다. 그 곳에는 시보니 선생 댁의 하녀들인 두 소녀가 웃고 서 있었습니다. 한스의 얼굴은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한스 씨! 그런 얼굴을 해서는!”

두 하녀는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 다음

“우리의 월급이 적어서 많이 도와 주진 못해요. 그래서 의논을 했는데, 3개월마다 9마르크씩 드리기로 했어요. 그거로 빵이라도 사도록 해요!”

한스는 콧등이 시큰해서 아무 대답도 못 했습니다. 한스는 시보니 선생에게서 공부하는 9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로 하녀들에게

신세를 졌지만, 한 번도 그 신세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녀들은 또다시 그 적은 월급을 쪼개서 한스를 도와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녀들의 마음 속에 천사가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스야, 힘을 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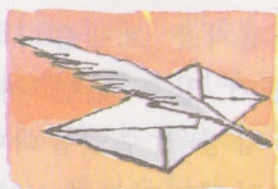
하고, 그의 등을 두드려 주는 사람은 두 하녀뿐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사람은 여럿이었습니다. 가령, 작곡가 클라우 선생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클라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스 군, 기운을 내게! 나도 가난하게 자랐어. 나는 빈민굴 출신이야. 나는 추운 겨울에도 단 하루도 편하게 쉰 적이 없어. 내 이 한쪽 눈이 애꾸인 것을 자넨 알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맥주를 사러 갔었지. 사 가지고 오다가 얼음판 위에 미끄러져 넘어졌어. 그 때 맥주병이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눈을 찔러 이 쪽 눈이 이렇게 되었어. 그래도 난 기운을 냈지!”

한스가 다시 새 길을 찾아 나설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은 두 하녀를 비롯한 마음씨 고운 여러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테네르

한스는 오덴세에 있을 때, 구르벨이라는 군인으로부터 귀염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 군인은 한스에게 늘 동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한스는 문득 그 시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 그분에게 편지를 해 보기로 하자! 무슨 수가 있을는지도 모르지!’

코펜하겐에 오면서 한스는
그 군인에게서 시인
구르벨의 주소를
알아 두었던
것입니다.



한스는 곧 시인 구르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 구르벨에게서 한스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던 시인 구르벨은 곧 집으로 놀러 오라고 답장을 주었습니다.

시인 구르벨은 친절하 사람이었습니다. 한스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좋아, 알았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네를 도와 주기로 하지!”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스 군! 이 편지는 엉망이야. 맞춤법이 엉터리야! 이제 올바른 덴마크어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알겠지?”

한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정확하게 쓰느라고 썼는데 엉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구르벨은 별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면서도, 한스를 위해서 100 탈리나 마련하



여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한스는 새 숙소도 마련하고, 계속 코펜하겐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스는 매일 구르벨에게 다니면서 정확한 덴마크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구르벨은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스는 구르벨에게서 참으로 배우

는 것이 많았습니다.

“한스 군, 무엇을 하거나 우선 실력이 제일인 것이야. 지금의 나이로서는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해야 해!”

구르벨은 이렇게 말하면서, 한스에게 라틴어까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토록 공부하고 싶어했던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차츰 공부에 게을러졌습니다. 그의 뜻은 오직 하루라도 빨리 무대에 서는 데 있었습니다. 배우나 가수가 되는 것만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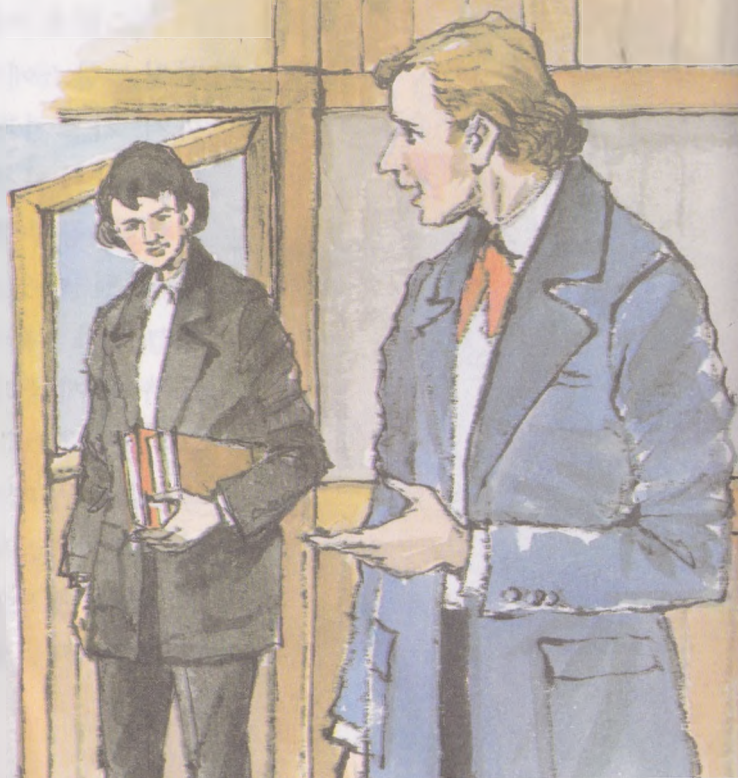
한스는 구르벨이 하라는 공부는 게을리하면서, 따로 음악 학원과 무용 학원에 나가 배우가 될 훈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구르벨의 비위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구르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봐, 한스 군! 난 자네가 그토록 게으른지 몰랐네. 언젠가는 내 생각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겠지. 나로서는 이 이상 도와 줄 길이 없네!”

한스는 또다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란 한
가지가 일어나면 또
이어서 일어나
는 법인가
봅니다.



한스가 다니고 있는
음악 학원과 무용 학
원에서 거의 때를 같
이하여 편지가 왔는데

「당신은 아무리 훈
련을 해도 희망이
없으니, 무대에 서
는 것을 단념해 주
기 바라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스는 훨씬 전에
《윗센베르의 도둑들》
이라는 희곡을 써서 왕립 극장에
보냈는데, 그것이 또 퇴짜를 맞은 것입니다.

「당신의 원고는 너무 틀린 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도와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앞
으로는 오직 제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스는 용기를 내어 회곡 한 편을 또 썼습니다. 그것을 왕립 극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아아, 또 틀렸군!’

한스는 맥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왕립 극장의 한 담당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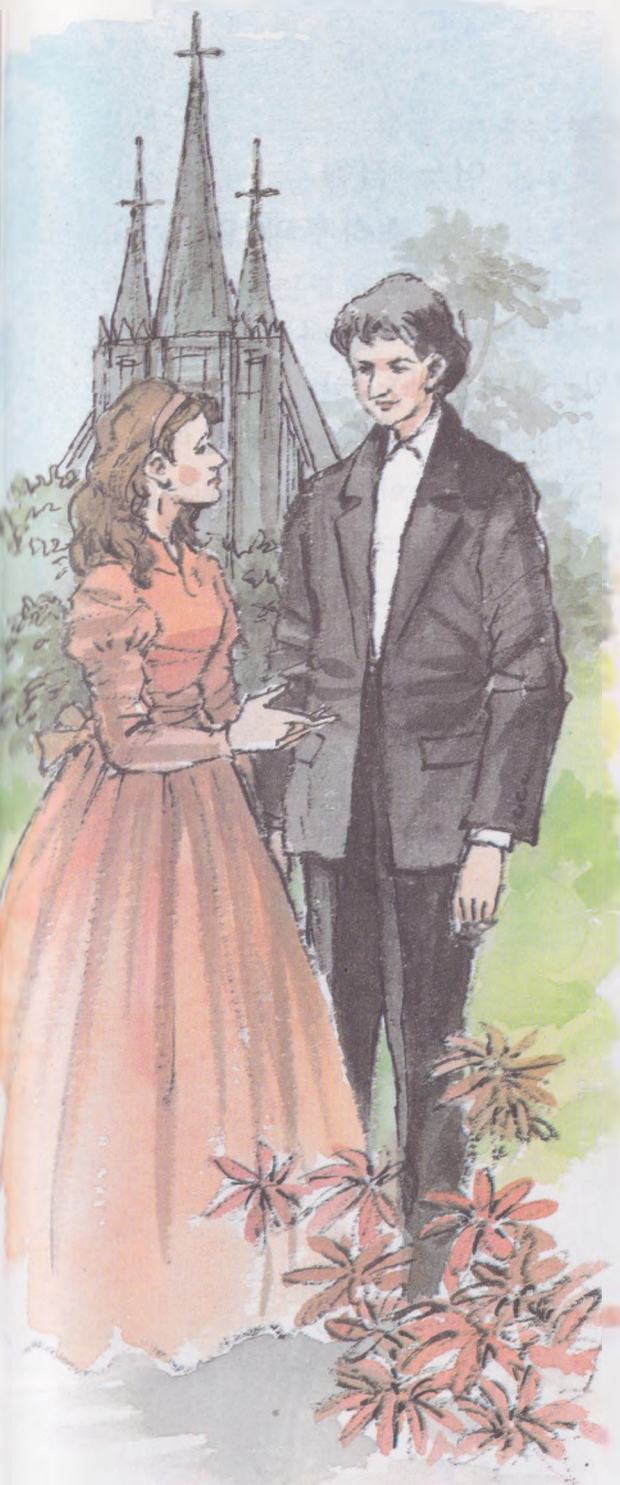
“당신이 쓴 회곡은 재미있는 곳도 있어요. 공부를 계속하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겠어요. 지배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고 위로했기 때문에, 한스는 다시 힘을 내어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빵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렵 한스는 빵을 사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런 날은 물만 마시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시보니 선생 댁 하녀들의 도움이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가까스로 잠을 자는 것밖에 다른 것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깊이 믿는 한스는 낡은 양복에 너덜너덜한 구두 차림으로 코펜하겐의 거리를 거닐며, 언젠가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무대에 설 날이 있으리라는 꿈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느님은 착하고 순진하고 열심히 한스를 불행의 구렁텅이에 그냥 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번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스는 코펜하겐의 거리에서 테네르를 만났습니다. 한스가 오덴세의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꽃다발을 준 일이 있는, 이를테면 한스의 오덴세 시절의 유일한 여자 친구였습니다. 테네르는 이제 예쁜 처녀가 돼 있었습니다. 부잣집 딸인 테네르는 코펜하겐의 친척집에 와서 결혼을 위한 여자로서의 교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네르도 한스를 보자, 여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한스, 힘을 내세요! 나도 한스를 위해 도움이 되어 주겠어요!”



어느 정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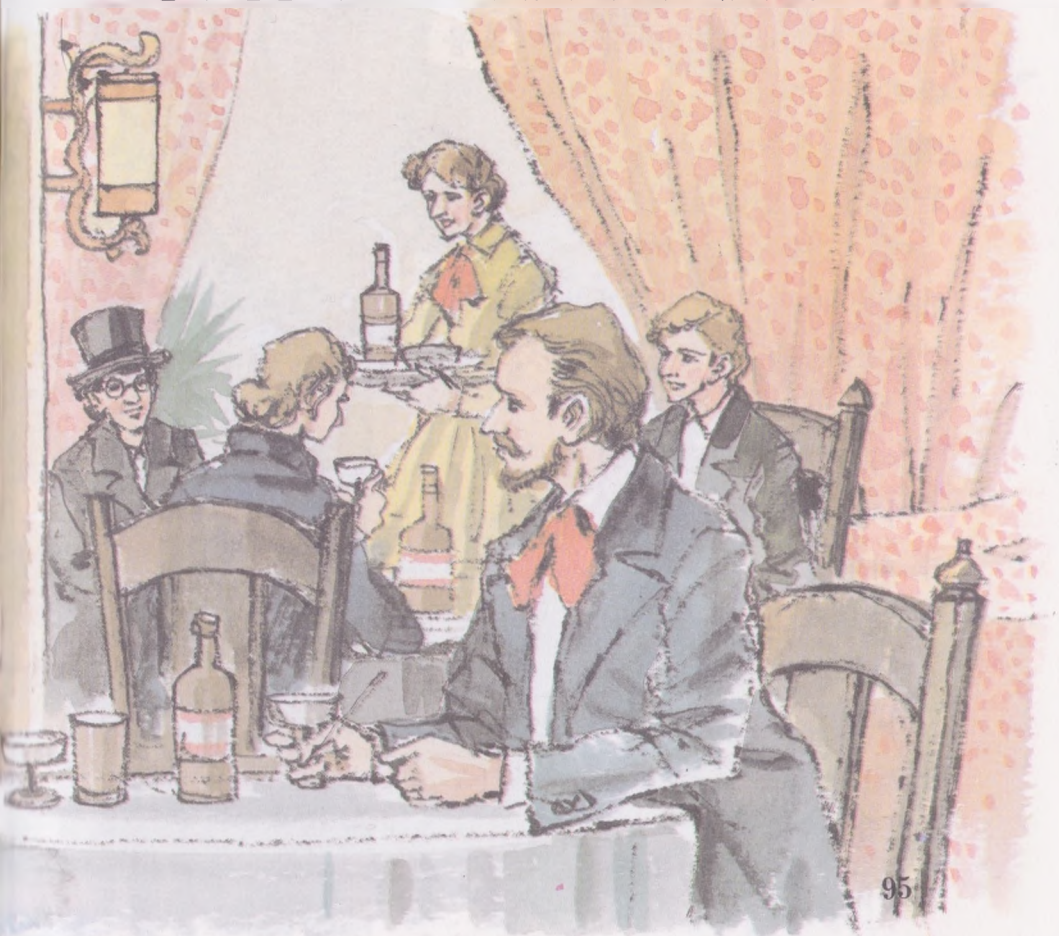
초하루의 일

테네르는 부잣집 딸이었으므로, 코펜하겐의 상류 사회에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테네르는 상류 사회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와 문학, 예술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살롱이란 곳으로 한스를 데리고 가서, 훌륭한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한스는 그 살롱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드나드는 사람 중에는 유명한 학자도 있고, 시인도 있고, 군인도 있고, 배우도 있고, 부유한 미망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스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좀 경멸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드러내 놓고, 아직도 시골티를 벗지 못한 한스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모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스는 여러 사람 앞에서 시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스는 감정을 잡고 너무나 열심히 낭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처음 한스에게 시 낭독을 해달라고 청한 사람은 한스를 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에서였지만, 한스가 시 낭독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당당하고 훌륭했으며, 한스의 참된 정신이 엿보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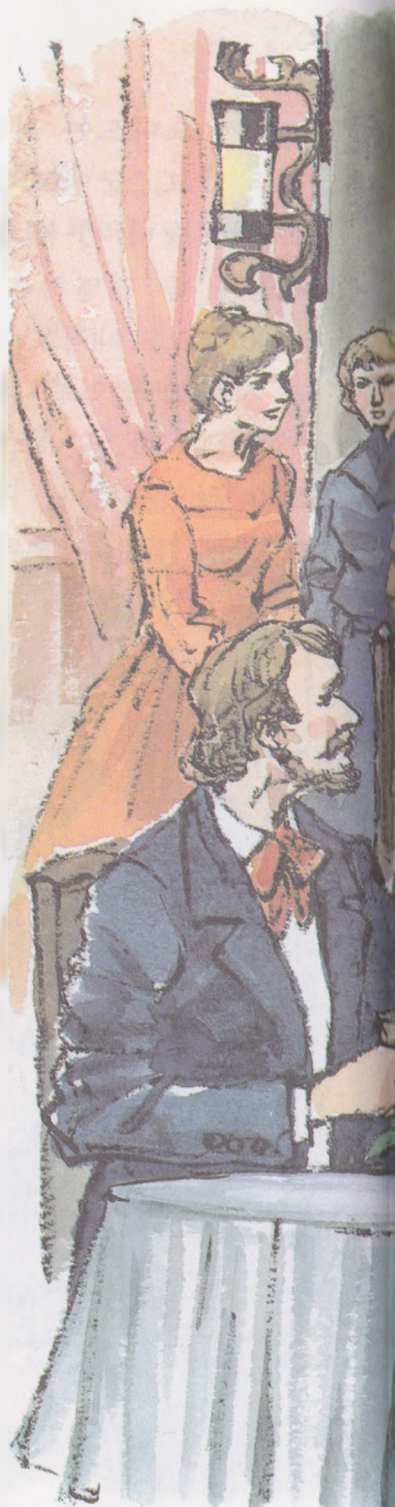
이 시 낭독을 계기로 사람들이 한스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경멸은 동정으로 바뀌었고, 조롱은 칭찬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소년이야!”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10년 뒤면 이 소년은 덴마크 제일의 훌륭한 극작가가 될 거야!”

하고 서슴없이 장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살롱에 드나들면서도 한스의 뜻은 오로지 무대에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대에 서고 싶어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이야기가 잘 말해 줍니다.

코펜하겐에 와서 두 번째 맞는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한스는 아무도 모르게 큰 일을 해냈습니다.

손님도 없고, 배우도 없고, 또
지키는 사람도 없는 왕립
극장의 무대에서 큰
소리로 외쳤
습니다.



여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월 대보름날 달을 향해 소원을 빌면, 그 해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덴마크에는 정월 초하루에 한 일은 그 해 내내 하게 된다고 믿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가 되



면, 장사꾼은 제일 먼저 돈을 세고,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총각은 동네 아가씨에게 말을 붙입니다.

한스는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배우가 되어, 무대에 서서 훌륭한 연기를 관객들에게 보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아침, 한스는 일어나자마자 왕립 극장으로 갔습니다.

정월 초하루인데다,
또 이른 아침이고 보
니 문이 닫혀 있을 것
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틀렸구나.’

단념하고 돌아가려
다 보니까, 악단이 드
나드는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
기에는 문지기가 있으
므로 들여보내 주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사정을 해 볼까?
어떻게 할까?’

한스는 주저하면서
문지기에게 다가갔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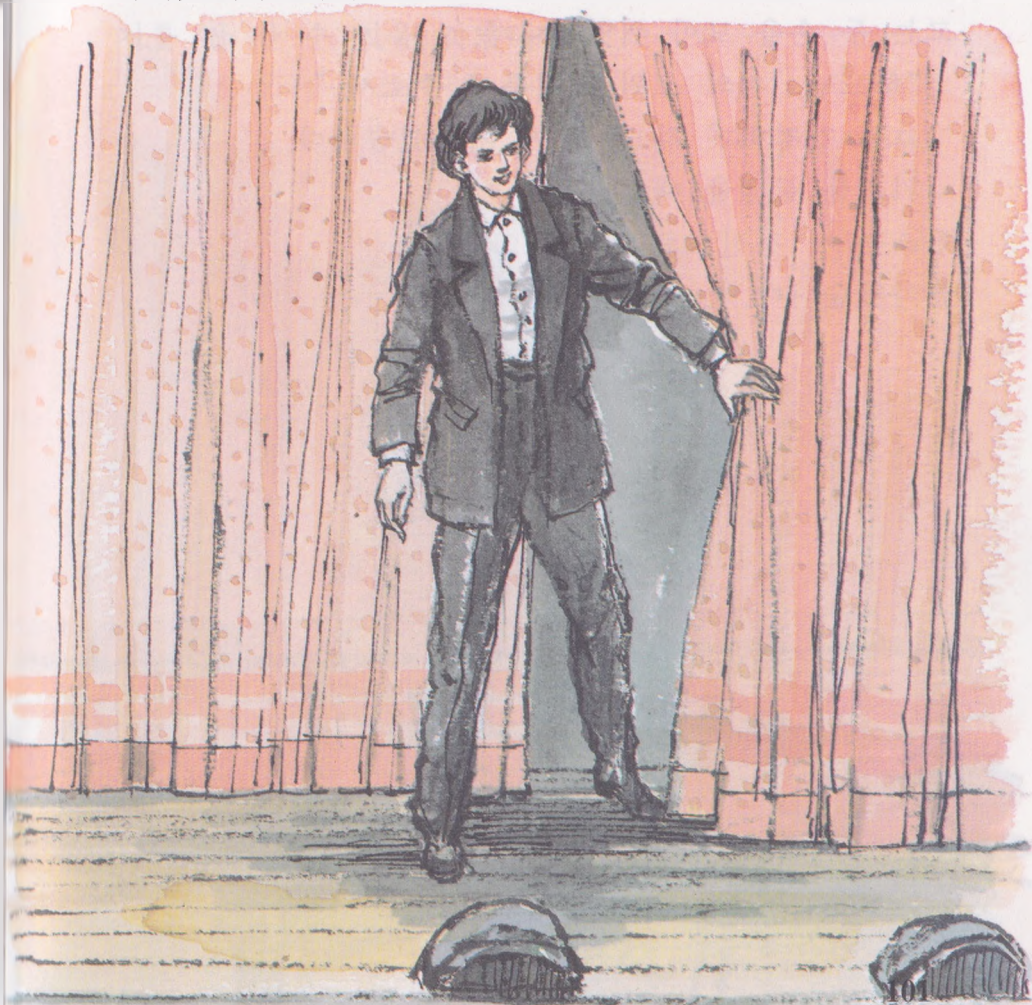
문지기는 노인이었
습니다. 한스가 다가가
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눈도 나
쁘고 귀도 어두운 것
이 틀림없었습니다.

한스는 슬쩍 그 앞
을 지났습니다.

문지기 영감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스는 마구 달려서 복도를 지나 캄캄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막을 제쳤습니다.

이제 명배우에 걸맞은 멋있는 대사를 한바탕 율작정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머리가 멍해서, 아무 대사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스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무슨 대사든지 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월 초하루에 한 일은 그 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 대사도 외지 못하면 올해에도 배우가 되기는 글렀습니다.

한스는 당황했습니다. 그럴수록 머리는 더 멍해지고 한 구절의 대사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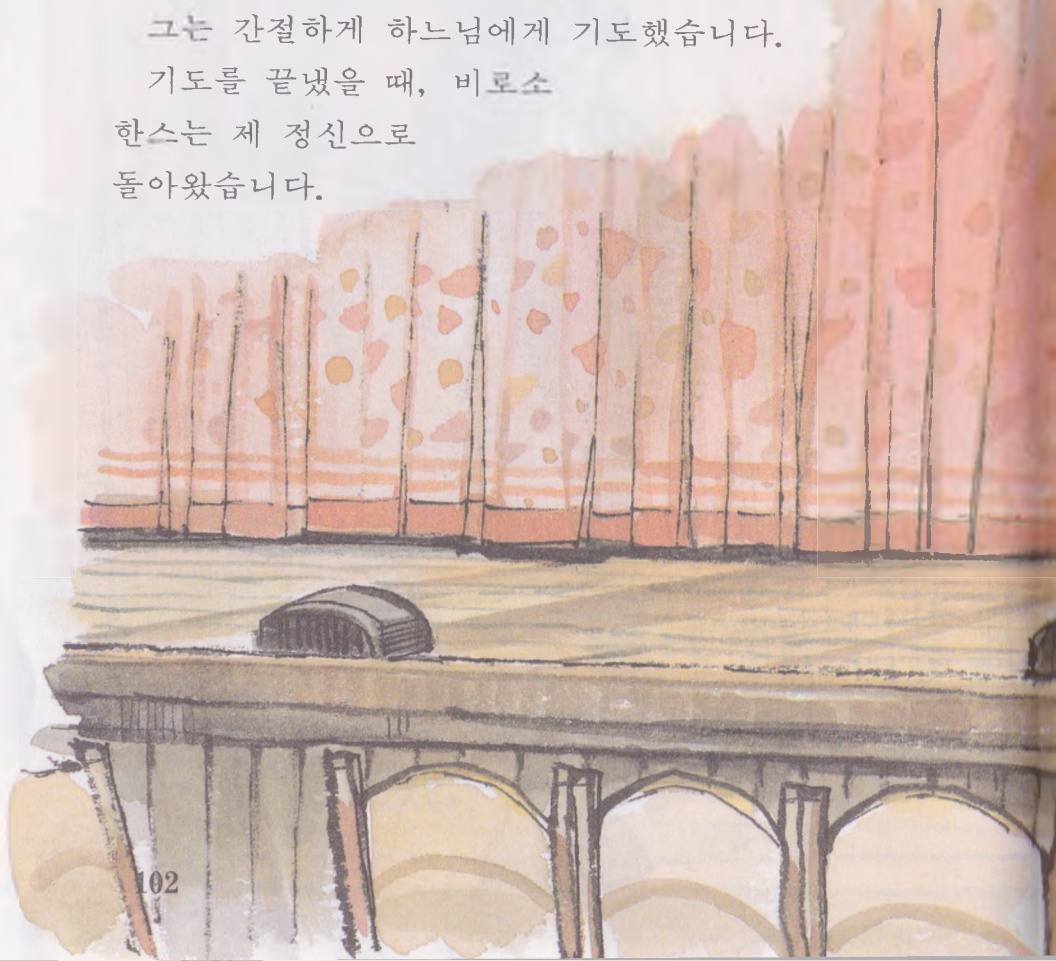
마침내 한스는 무대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하느님,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는 간절하게 하느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끝냈을 때, 비로소

한스는 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사를 외지 못하고 기도만 하다니…….’

이렇게 잠깐 쉬우쳤지만, 생각해 보니 기도 또한 연기가 아니겠어요? 한스는 마음이 놓이고, 자신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올해에는 꼭 배우가 되겠지. 정월 초하룻날 무대에서 연극을 했으니까 말이야.’

이것만 보아도 한스가 얼마나 배우가 되고 싶어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에의 길

“한스 군, 자네는 배우가 되기 전에 먼저 공부를 더 해야겠어. 아직 공부가 모자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야 해!”

이렇게 충고해 주는 사람은 그 무렵 덴마크의 일류 정치가이며, 왕립 극장의 지배인이었던 요나스 코린이었습니다.

한스가 코린을 알게 된 것은 테네르와 함께 코린 댁에 드나들면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코린은 이전부터 한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스가 희곡을 써서 왕립 극장에 보냈을 때, 코린은 그것을 읽어 보았었습니다.

그 때는 아직 미숙한 듯하여 되돌려 보내기는 했으나, 한스의 좋은 재질을 인정한 그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코린은 한스가 배우로서의 소질보다 문학가로서의 소질이 더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린은 한스를 학교에 보내어, 문학가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을 쌓도록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학교라고요?”

한스는 코린의 말 뜻을 잘 알지 못해 되물었습니다.

“그렇지. 라틴 어 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가야겠어.”

그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알고 있어. 모든 것은 내가 주선해 줄 테니까!”



코린에 의해서 마침내 한스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코린은 그 당시 제일 가는 대정치가였는데, 말도 적고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보기만 그럴 뿐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스가 희곡을 써 가지고 찾아갔을 때, 코린은 단 한 마디도 듣기 좋은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돌아가는 한스의 힘없는 뒷모습을 보고는 자기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마음 속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한스가 알 턱이 없었습니다.

코린은 덴마크의 임금님에게 한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학교에 다니는 여러 해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나라에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공부를 하기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시인이 될 재질이 풍부해.’

코린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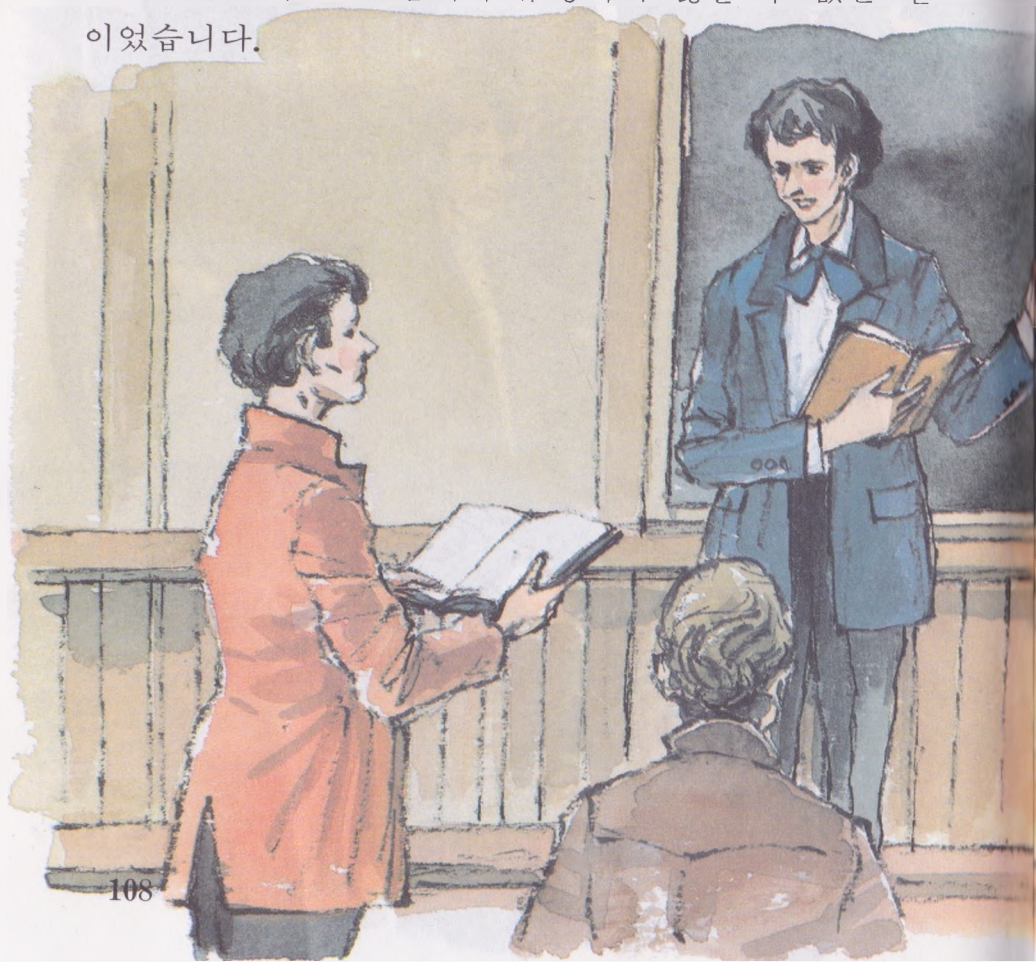
한스는 라틴 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1822년 가을, 하늘이 맑게 갠 오후였습니다. 열일곱 살의 한스는 마차를 타고 슬라겔세의 라틴 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코펜하겐을 떠났습니다. 춥고 배고팠지만 꿈에 차 있던 코펜하겐에서의 3년간의 생활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는 얼떨떨할 뿐이었습니다. 그 때까지 단 한 번도 내가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어리둥절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리라는 계획도, 어떻게 되리라는 예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스는 이 때의 일을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스는 라틴어 학교의 2학년에 편입되었습니다. 한스로서는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버지가 다니고 싶어하셨던 라틴 어 학교!’

아버지나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할머니마저 한스가 코펜하겐으로 떠난 뒤 돌아가셔서,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토록 한스를 귀여워해 주시던 할머니, 일요일이면 늘 꽃을 꺾어 들고 한스를 보러 오시곤 하던 할머니!

한스가 라틴 어 학교에 입학하면서, 한스의 시인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라틴 어 외에도 독일어와 이탈리아 어를 공부하면서 많은 고전을 읽었습니다.

한스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공부가 늦은만큼, 조금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는 라틴 어 학교의 선생님들도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역시 코린 선생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한스의 뒤를 돌보아 주는 코린의 높은 안목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울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한스가 라틴 어 학교에 들어가자, 가장 기뻐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집 한스가 라틴 어 학교엘 들어갔다는군요!”
어머니는 한스에게서 온 편지를 들고 이웃을 돌아다녔습니다.

“거 보라고! 한스는 이 오덴세를 빛낼 아이라고!”

“역시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

이웃집 어른들도 모두들 이렇게 한스의 성공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한스를 특히 귀여워해 주던 군인 구르벨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는



「한스 군, 여름 방학에는 한 번 고향에 놀러 오게.」
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여비를 부쳐 주었습니다.

한스도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도 무척 보고
싶고, 마을 어른들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오덴세에는
그다지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향
의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한스에게 있어 고향을 떠나 있는 3년이란 그다지 짧
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한스는 간단하게 짐을 챙
겨 들고 고향 오덴세로 돌아갔습니다.



“저 보게. 구둣방집 한스가 돌아왔네!”

“대단한 아이야! 임금님이 학비를 대어 공부를 한
다니까!”

눈에 익은 오텐세의 거리, 여전히 단칸방에서는 어
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 한스야!”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했던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힘껏 끌어안은 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에는 거들떠보지
도 않던 이웃 친구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코펜하겐은 무척 크지?”

“임금님을 뵈었니?”

“임금님은 키가 얼마나 크시니?”

사람들은 제각기 이렇게 물어 뒀습니다. 한스는 웃
으면서 아는 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정

쟁이 새아버지까지도 성공해서 돌아온 의붓아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한 달이 꿈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에 돌아오니 다시 어려운 공부가 시작되어, 이젠 놀 틈도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장 선생은 매우 엄격하기로 소문이 난 분이었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한스를 꼼짝이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할 정도로 잔소리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스는 가끔 야속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이 갑자기 헬싱피르라는 곳에 있는 라틴 어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은 헬싱피르로 떠나기 전날 한스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스야, 너도 나와 함께 헬싱피르로 옮겨야겠다.
내가 뒤를 돌보아 줄 테니까.”

한스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을 따라 헬싱피르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헬싱피르는 셀라 섬의 북쪽 끝에 있는 아름다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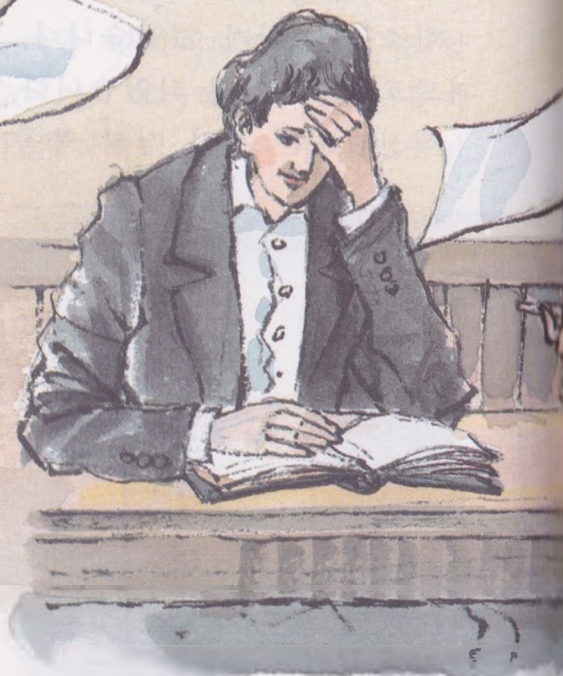
시였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기 짝이 없는 교장 선생은 한스가 밖에 나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나도 교실에 그냥 남아 공부를 하도록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어린애를 보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이런 모양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좋아하는 한스라고 하지만,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슬프고 고달파서 더 버티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착한 어머니
나는 지쳤어요.
슬퍼졌어요.
나는 울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착한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것이 교장 선생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따위 장난만 하다니. 대학교엔 어떻게 갈 작정이냐? 너는 지금 임금님의 돈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교장 선생은 한스를 몹시 꾸짖고, 그 날부터 한층 더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한스는 괴로웠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고, 공부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나로서는 가장 불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스는 뒤에 이렇게 책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스는 헬싱피르의 라틴 어 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한 채 코펜하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스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병이 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은 요나스 코린이, 한스가 가없는 생각이 들어 그를 코펜하겐으로 되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이 심술쟁이여서 한스에게 심하게 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한스로 하여금 뛰어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할 뜻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다락방에서

한스가 덴마크의 서울인 코펜하겐에 처음 온 것이 열네 살 때였는데, 그로부터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스물한 살의 당당한 청년입니다. 한스가 라틴 어 학교를 중퇴하고 코펜하겐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요나스 코린을 비롯하여 그를 아는 여러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한스는 다락방을 빌려 살기로 했습니다. 비록 한스 혼자 간신히 누울 수 있는 좁은 다락방이었지만, 그는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맑게 갠 파란 하늘, 아름다운 거리, 친절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스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몸도 금세 건강해졌고 기분도 명랑해졌습니다.

코린의 주선으로 그는 라틴 어 선생에게 다니면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로 개인 교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공부가 잘 되어, 성적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면 동녘 하늘에서 달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윽고 달은 한스의 다락방 창가로 다가옵니다. 언저리 한스의 방을 엿보고 빙그레 웃습니다.

한스는 혼자 있으면서도 조금도 외롭지 않습니다.
한스와 달이 서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한스는 이렇게 달에게 말합니다.

“그래, 착한 한스야. 오늘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지.”



달은
대답하면서
활짝 웃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한스는 《그림 없는 그림책》이라는
동화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시인의 방에 달이
찾아와서 전날 밤에 본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
용을 쓴 책입니다. 이 조그만 다락방에서 달과 친하게
지낼 때, 한스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 없는 그림책》
이 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달은 한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잠시 《그림 없는 그림책》을 들춰 보기로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하고 어느 날 밤 달님이 말했습니다.

저녁이에요. 나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높은 하늘에서 어느 집 안마당을 내려다보았지요. 마침 한 마리의 암탉이 열두 마리의 새끼병아리를 데리고 막

닭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참이었

어요. 그 때, 느닷없이 한

소녀가 뛰어나왔어요.

소녀는 병아리 뒤를

쫓으며 장난을

칩니다.



병아리들은 뻘뻘 울어 대며 야단이 났어요.
어미닭은 어쩔 줄 모르고 쪼르르다가 병아리들을 품
고 땅바닥에 웅크렸지요. 그 때, 이 집의 아버지가
나왔어요.

“안 돼! 왜 그런 장난을 하는 거냐!”
하고 아버지는 소녀를 꾸짖었어요.

‘야단맞는 것이 당연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상은 보지 않고 옆집
으로 옮겨 갔어요.

그런데 오늘 밤, 그것도 바로 조금 전 이야기에
요. 나는 어젯밤의 그 집 안마당을 들여다보았어요.
어젯밤과는 달리 사방이 조용했어요. 거기에 그 소
녀가 또 나왔어요.

‘저런!’



내가 긴장해서 보고 있는데, 소녀는 닭장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장난이로군!’

나도 화가 났어요.

‘또 무슨 장난을 하려고 저러나!’

어미닭은 놀라서 헛대에서 뛰어내려 도망칩니다.

소녀는 마구 그 뒤를 쫓고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소녀의 팔목을 잡았을 때, 나도 마음이 놓였지요.

“왜 또 여긴 들어와서 장난질이야!”





아버지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딸을 꾸짖자,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껴있어요.

“저, 아버지, 저는…….”

소녀는 울면서 대답합니다.

“어제 닭을 놀라게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과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잘못했다고 빌려고…….”

이 귀여운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얼굴에 함박 웃음이 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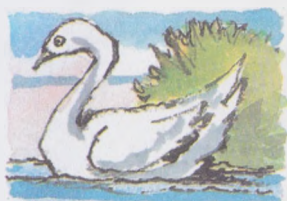


“오, 그러냐? 내 귀여운 딸아!”

아버지는 딸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나도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소녀의 입이며 눈에
환하게 달빛을 보냈지요.

안데르센의 《그림 없는 그림책》에는 이러한 재미
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한스가 시를 쓴 것은 슬라겔세의 라틴 어 학교 시절 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동안 너무나 공부에 시달린 나머지 제대로 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코펜하겐에 돌아와서 이상하리만큼 머리가 맑아지고 성적이 오르고 건강도 좋아져, 한스는 그 때부터 다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트는 새로 쓴 시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한스는 유명한 문학가인 하이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이벨은 한스의 시를 읽고 크게 놀랐습니다.

“한스 군, 자네는 훌륭한 시인이야! 내가 하고 있는 신문에 자네의 시를 실기로 하지!”

하이벨은 이렇게 말하면서, 한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얼마 뒤, 그 신문에 한스의 시가 두 편 실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야! 자, 한 번 읽어 보게!”

“훌륭하군! 근래에 보기 드문 시야!”

시를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쓴 시일까? 작자의 이름이 빠져 있지 않나!”

“뭐 뻔하지. 하이벨이 썼지 누가 썼겠어!”

“그렇겠군! 하이벨이라면 이런 훌륭한 시를 쓰는 게 당연하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이 시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스의 이름은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28년 9월, 스물세 살의 한스는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여 코펜하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한스가 비로소 이룬 것이지요.



그 해, 한스는 《호르멘 운하에서 아마겔 섬 동쪽 끝까지의 도보 여행기》를 썼는데, 출판이 되자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한스의 이름은 코펜하겐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도대체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코펜하겐 대학의 젊은 학생이라지?”

덴마크 국내에서만만이 아닙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란 이름은 외국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당신의 여행기를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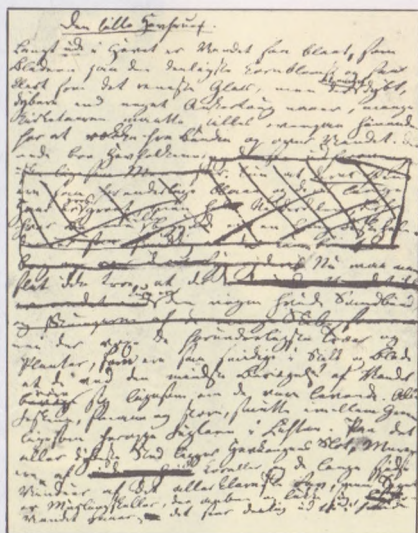
그의 여행기는 독일에서 번역되어 나왔고, 스웨덴에서도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어느 새 코펜하겐에서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놀림이나 받던 미운 오리 새끼에 지나지 않던 한스가, 이제는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 것이지요.

「어머님, 저는 이젠 코펜하겐 대학의 학생이면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는 체를 합니다. 또 매일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저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코 오덴세의 생활을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착하고 성실한 한스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 주는 안데르센(왼쪽)과 그가 쓴 동화의 자필 원고(오른쪽)



이 무렵, 어머니
에게 보낸 한스의
편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써어 있었습
니다.

한스가 희곡을 완
성시킨 것도 이 무
렵입니다.

한스의 희곡은 코
린의 주선으로 곧
왕립 극장에서 상연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연극이 상
연되는 날이 왔습니
다. 극장 안은 관객
들로 대 성황을 이
루었습니다. 과연 안
데르센의 인기는 대
단한 것이었습니다.

막이 오르니까 많
은 관객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 시작
했습니다.

“덴마크의 천재
시인 만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만세!”

극장이 온통 떠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아직도 순진하고 수줍은 젊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반짝였으나, 환호하는 관객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찢찢맙니다. 극장을 뛰쳐나온 한스는 거리를 지나 너도밤나무가 뺑뺑이 들어찬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소리가 변해서 가수의 길이 막혀 절망했을 때, 시
보니 선생 댁 하녀들에게 격려를 받았던 곳입니다.

‘고마운 사람들! 그들이 아니었다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을 거야.’



한스는 새삼스럽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서 더욱 훌륭한 시인, 정말로 덴마크에서 제일 가는
시인이 되어 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스는 점점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초대하겠으니 꼭 놀러 와 주십시오.”



코펜하겐의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앞을 다투어 한스를 초대했습니다. 한스는 행복했습니다. 그렇다고 들떠서 놀러 다닐 한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부지런히 공부해야만 더욱더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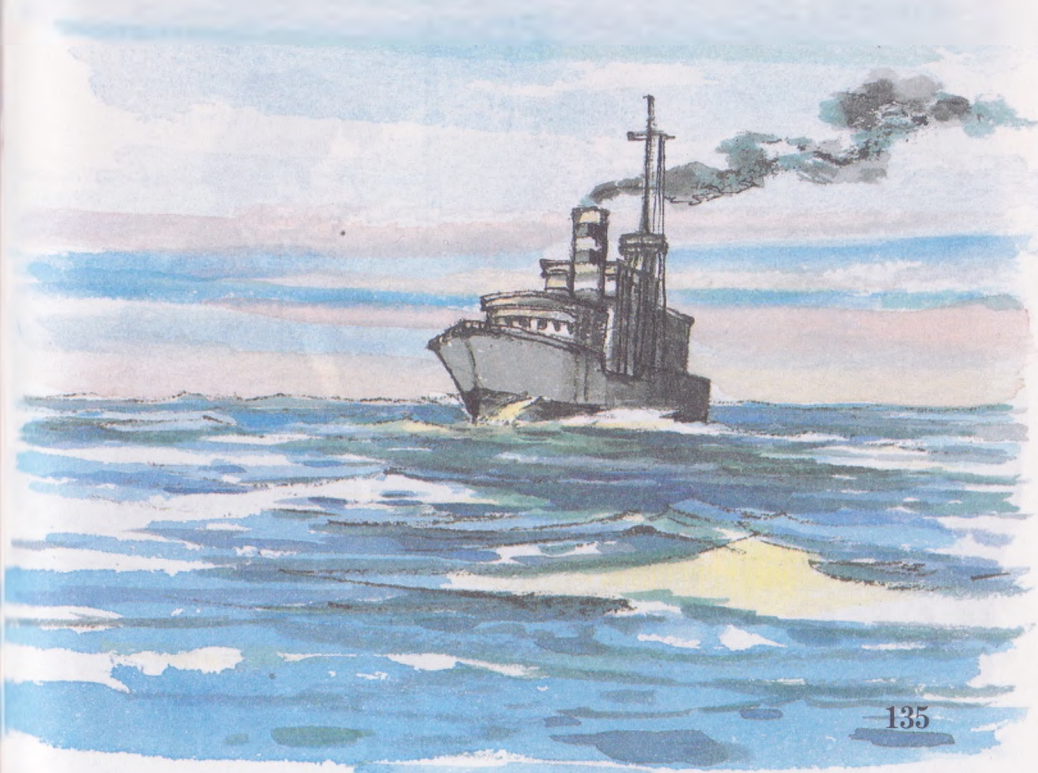
한스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성적도 늘 1등이었습니다.



어두운 파도 속에서

1830년 여름, 스물다섯 살이 된 안데르센은 자기가 태어난 덴마크에 대해서 좀더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작품이 팔려 약간의 돈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는 뜨겁게 열기를 뿜어 대고, 하늘에는 흰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은 마음이 상쾌했습니



그러나 리볼에게는
부모가 정해 놓은 약
혼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안데르센 씨
를 더없이 좋아하지
만 결혼은 할 수 없
어요.”

안데르센이 결혼을
신청하자 리볼은 눈물
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리볼 씨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것
을 몰랐어요. 잘 알
았습니다. 행복을
빌겠어요.”

안데르센은 태연하
게 대답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슬퍼서 가슴
이 찢어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여행도
마지막에는 슬픈 여행
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씨가 더없



다. 지금까지는 항상 남의 신세만 저 온 그였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돈을 마련해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선을 타고 항해한 것도 이 여행 중에 맛본 즐거운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핀 섬이라는 곳에서는 학교 동창생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동창생에게는 갈색 눈을 가진 리볼이라는 아주 예쁜 누이동생이 있었습니다. 안데르센과 리볼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안데르센은 리볼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착한 안데르센은 리볼의 행복을 빌면서 코펜하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공부에 열중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넓은 세상을 저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써도

“아직 젊은 학생이니까.”

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가 안데르센을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러는

“저 어린 녀석이 쓴 글을 좀 보라고. 도대체 어디가 좋다는 거야!”

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것이 배아파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오자, 그 해 안데르센은 여행에서 얻은 것

가지 느낌을 정리해서, 한 권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그러나 그전부터 안데르센을 은근히 헐뜯어 오던 사람
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
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데르센의 시는 안 되겠어!”

“저 따위 시집을 누가 읽겠나!”

마음씨 고운 안데르센은 우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리볼과의 일로 마음이 우울할
때였습니다. 그는 점점 우울해졌고,
마침내는 큰 병에 걸려 앓는
사람처럼 기운이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안데르센을 돌보아 주던 요나스 코린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끔끔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독일에라도 여행해서 기분 전환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코린은 이렇게 권했습니다.

속이 답답할 때에는 여행이 무엇보다 좋은 약입니다. 안데르센은 코린의 권유에 따라, 독일행 배를 탔습니다. 덴마크를 떠나니까 듣기 싫은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밤에는 잠도 잘 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명한 문학가들이 따듯이 반겨 주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관광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덴마크에는 산다운 산이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눈 아래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 보니, 마음이 더없이 후련했습니다.

‘역시 독일에 오길 잘 했구나!’

안데르센은 상쾌한 기분이 되어 덴마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독일 여행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은 독일과 영국에서까지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에서는 여전히 험뜯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약한 안데르센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데르센이 무엇을 쓰든지 비웃으며 욕만 해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은 맥이 풀렸습니다. 일감도 훨씬 적어져

서, 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무엇을 써도 욕만 해 대니까, 출판사에서 안데르센의 책이라면 아예 낼 생각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의 일을 안데르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에 날카로운 칼날이 닿아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틀렸다는 절망적인 심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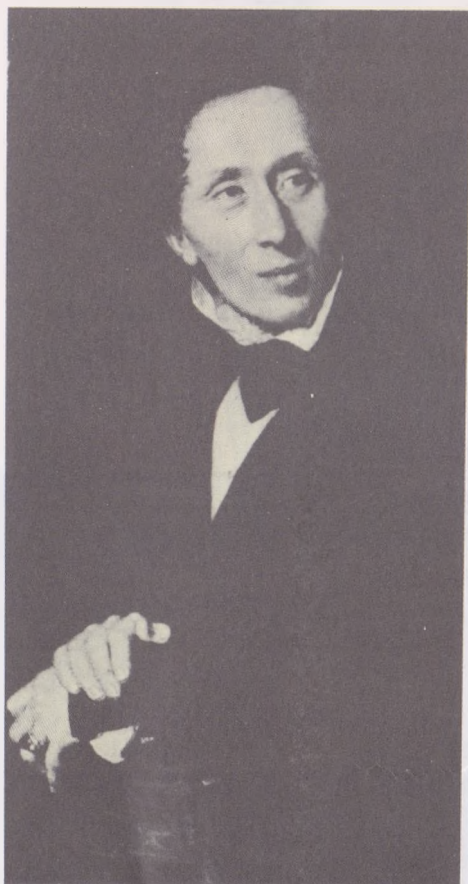




《즉흥 시인》과 《인어 아가씨》

가까운 친구들은 안데르센에게 또 한 번 덴마크를 떠날 것을 권했습니다. 안데르센이 힘을 되찾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안데르센



이번에도 코린이 힘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님인 프리드릭 6세로부터 여행 자금을 얻어, 해외 여행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833년, 스물여덟 살이 된 안데르센은 코펜하겐에서 배를 타고 독일의 함부르크로 떠났습니다. 마치 고국에서 쫓겨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부터는 마차로 독일의 여러 도시와 시골을 두루 여행하고 프랑스의 서울 파리에 닿았습니다



가장 기뻐던 것은 파리에서 하이네를 만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이네는 독일의 시인으로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로렐라이》를 지은 사람입니다. 안데르센은 그전부터 하이네를 크게 존경하고 있었고, 만나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리에서 얼마 동안 지낸 후 스위스로 갔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안데르센은 르 로클이라는 조용한 고원 도시에서 또 얼마를 보냈습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덴마크에서 온 나그네인 안데르센에게 매우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차츰 원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은 더할 수 없이 즐거웠습니다. 태양은 더 찬란히 빛나고, 소녀들의 웃음소리는 이 나라를 더욱 활기에 넘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데르센은 갑자기 슬픈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이란, 코린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오덴세에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은 하숙방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 하느님,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3개월을 보내면서 여행의 피로를 풀 다음, 이번에는 나폴리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나폴리에서 어느 날, 안데르센은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는 눈 먼 소녀를 보았습니다. 안데르센은 소녀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누더기옷을 걸치고 까만 머리에 제비꽃을 꽂고 있었는데, 마치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즉흥 시인》 속에 나오는 눈먼 소녀는 바로 이 소녀가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 여행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온 안데르센은 이탈리아 여행을 소재로 해서 《즉흥 시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이 책이 되어 나오자 반응이 굉장하였습니다. 비평가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고, 책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안데르센을 헐뜯기만 하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욕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설임을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데르센은 이 《즉흥 시인》으로 덴마크 제일의 작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얼마 뒤에, 안데르센은 첫 동화집을 펴냈는데, 이 때는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데르센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린애들의 책을 썼을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데르센은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1835년에 두 번째 동화집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안데르센이 돌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별수없군. 동화를 쓰지 않는 수밖에!’

안데르센은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한 시골을 다녀온 후, 안데르센의 마음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 시골에서 그의 동화책이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른들까지도 “아, 저분이 동화 쓰시는 안데르센 선생이신가?” 하고 물려들었던 것입니다.





안데르센은 너무나 감동하여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 없다. 나는 일생 동안 아이들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화를 쓰겠다!”

1837년, 서른두 살 때 안데르센은 자신의 세 번째 동화집을 냈습니다. 이 속에 그의 가장 훌륭한 걸작 중의 하나라 일컬어지는 《인어 아가씨》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동화는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이상 안데르센의 동화에 대해서 험뜯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어 아가씨》는 안데르센을 영원한 동화 작가로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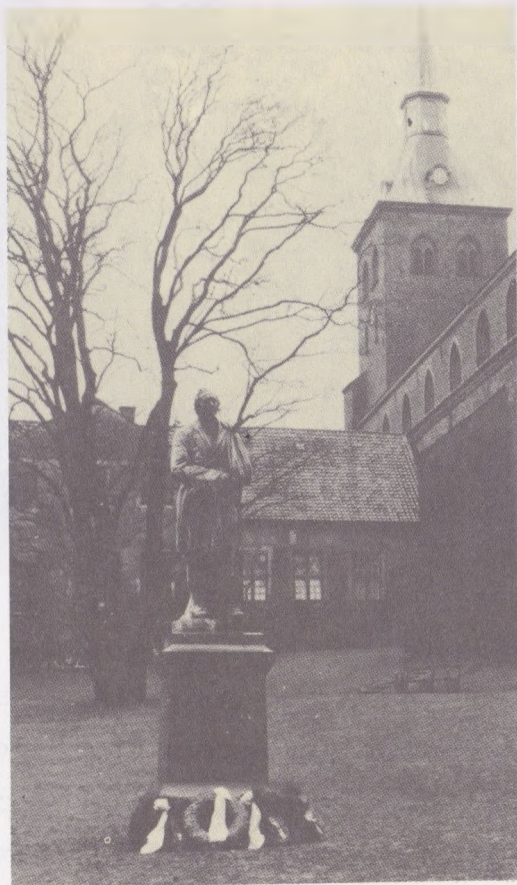
그 후, 그는 매년 한 권씩 동화집을 내어서, 그가 쓴 동화는 무려 160여 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동화의 왕이라 불러 마땅합니다.



영광의 오덴세 시

1867년 12월 6일 금요일, 안데르센이 예순두 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열흘 전에 오덴세 시로부터 안데르센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오덴세에 있는 안데르센 동상



「귀하를 오덴세 시의 명예 시민으로 추천합니다. 오덴세 시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소년이던 내가 고향을 떠난 지 4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명예 시민이 되어 돌아간다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벅차서 저는 눈물만이 나올 뿐입니다…….」

12월 6일, 안데르센을 맞는 오덴세 시는 그대로 축제였습니다. 시내에는 국기와 꽃으로 장식되고, 밤이면 불빛으로 휘황했습니다. 학교는 모두 이 날을 휴일로 정해,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손에 깃발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안데르센을 맞는 환영식장은 온통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합창대의 환영 합창이 끝나고, 답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선 안데르센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동화를 써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그들은 땅 속에서 그들의 귀여운 한스가 얻은 영광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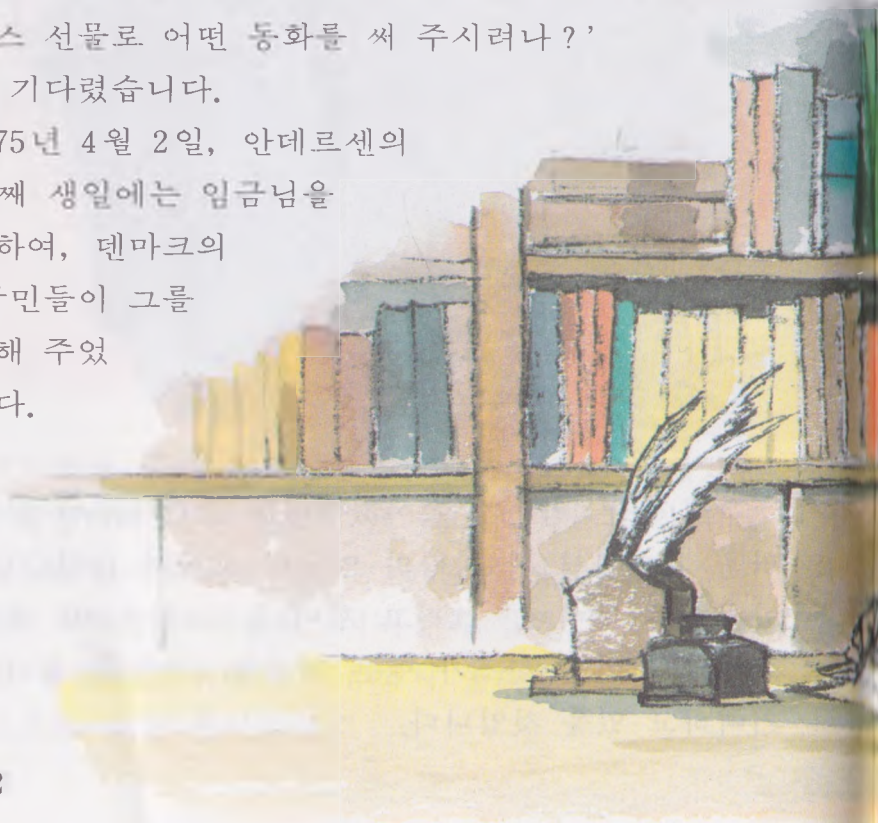


코펜하겐에 있는 안데르센 동상

이제 안데르센은
덴마크만의 안데르
센이 아니었습니다.
온 유럽의 안데르
센, 전세계의 안데
르센이었습니다. 즐
거운 크리스마스만
되면 덴마크의 어린
이들과 전세계의 어
린이들은

‘이번에는 크리스
마스 선물로 어떤 동화를 써 주시려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1875년 4월 2일, 안데르센의
70회째 생일에는 임금님을
비롯하여, 덴마크의
온 국민들이 그를
축복해 주었
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차츰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제 동화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해 8월 4일 밤, 그는 슬픔 속에 친지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잠든 모습은 평화롭고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난한 구둣방집 아들 한스, 늘 울기만 하던 한스,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던 한스, 그 자신이 마침내 고향 오덴세의 영광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없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백조의 마음을 가진 미운 오리 새끼

신 경 립

〈시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어른들에게도 더없이 친숙한 이름입니다. 어려서 그의 동화 몇 편을 읽거나 듣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동화책은 어느 집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집이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의 동화가 어린이들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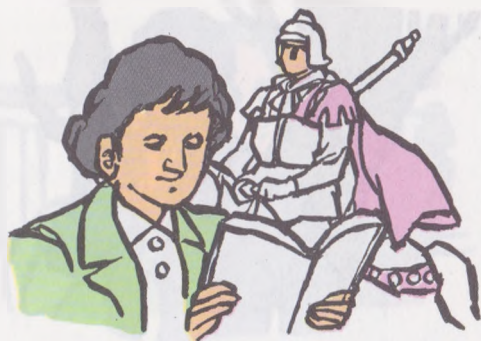
안데르센은 그의 자서전 속에서

“내 생애는 참으로 기복이 많아서,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제화공, 어머니는 건강하고 선량했지만 글자도 모르는 시골 아낙네, 할아버지는 정신 이상인 늙은이요, 할머니는 자선 병원에서 일하는 잡역부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대개 그렇듯이, 그의 생애 전반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주위 사람들의 경멸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폴레옹 군에 입대하여 전선에 나갔다가 되돌아온 그의 아버지의 좌절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만년에 이르러 안데르센은 온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모으게 되었으며, 그의 장례식 때는 국왕까지 참석하고 전 국민이 가슴에 상장을 달고 애도하는 등, 문인으로서의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한 편의 소설 이상으로 흥미 진진한 생애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19년, 맨주먹으로 덴마크의 서울 코펜하겐으로 뛰쳐올라온 배우 지망생인 14세짜리 소년 안데르센을 맞아 주었던 것은 굶주림과 절망과 실의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지요.

안데르센도 몇 번이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의지로 그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갑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그를 도와 줌으로써,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와 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해도, 그 자신의 피나는 노력이 따르지 않았던들, 그의 예술의 결실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술가로서의 그의 길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번의 외국 여행은, 그의 작품에 가하여진 비난이 가져다



준 상처를 달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 동화집을 발표했을 때까지, 그는 거의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골에 가서 그의 동화가 가난한 농부들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읽히고 있음을 보고, 다시 용기를 얻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동화의 왕** 안데르센은 평범한 시인에 그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작품이 사랑을 받고 널리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는 끝까지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용기가 그의 동화에 더 한층 값어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화공 아버지로부터 문학적 재능을 이어받았으며,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된 것도 책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또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는 착한 마음씨와 깊은 신앙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는 안데르센에게 동화를 들려 주는 아버지, 장난감을 만들어 함께 놀아 주는 아버지, 지붕 위의 손바닥만한 밭에 양파를 기르는 어머니, 일요일마다 꽃을 꺾어 들고 손자를 찾아오는 할머니…….

안데르센의 동화가 어디에 그 젖줄을 대고 있는가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처음에는 배우가 되려 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가수에의 꿈도 깨어지고 맙니다. 이 때, 후원자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라틴 어 학교를 거쳐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을 받고 시인への 길로 접어들습니다. 그리고 30세경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하여, 그 수는 160여 편에 이릅니다.

덴마크의 이웃 나라 스웨덴의 신문에서

‘안데르센은 덴마크만의 안데르센이 아니다. 전세계의 안데르센이다.’

라고 쓴 것만 보아도, 그의 명성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자서전 속에서

‘나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에 희롱당하면서도 그는 결코 신앙심을 잃지 않았던 겸허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처럼 깨끗하고 티없이 맑은 동화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깊이 믿고 가난하고 불행한 이웃에 대하여 참다운 사랑을 가진 예술가 안데르센의 일생은, 그의 동화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연 표

연대	나이	안데르센의 생애와 업적	
1805		덴마크의 핀 섬에 있는 오덴세라는 마을에서 출생.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고, 어머니는 세탁일을 하는 가난한 집안임.	
1811	6	가난한 어린이들이 다니는 국민 학교에 입학했으나,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짐.	
1812	7	열렬한 나폴레옹의 지지자였던 아버지가 지원병으로 군에 입대.	
1814	9	나폴레옹의 패전으로 심신에 큰 타격을 입고 귀국.	
1816	11	신경 쇠약으로 아버지 사망함.	
1819	14	견신례(신교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의식)를 받은 후에 코펜하겐으로 떠남.	
1822	17	왕립 극장 지배인 요나스 코린의 인정을 받아 슬라겔세의 라틴 어 학교 입학.	
1826	21	신경 쇠약으로 라틴 어 학교를 중퇴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 개인 교수를 받음.	

연대	나이	안데르센의 생애와 업적	
1828	23	코펜하겐 대학에 입학. 이 해, 《호르멘 운하에서 아마겔 섬 동쪽 끝까지의 도보 여행기》를 자비 출판. 이어서, 《니콜라이의 탑의 사랑》이라는 극본을 써서 왕립 극장에서 상연.	
1830	25	핀 섬의 관광 여행 도중에 친구의 누이동생인 리볼과 친히 사귀었으나, 이미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었으므로 결혼을 단념함. 이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코린의 주선으로 독일의 여러 곳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독일 여행기》 출판.	
1833	28	코린의 추천으로 덴마크 국왕으로부터 여행 자금을 받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여행.	
1835	30	《즉흥 시인》으로 작가로서의 지위 확립. 이 해에 최초의 동화집 출판. 연말에 두 번째 동화집 출판.	
1837	32	세 번째 동화집 출판. 《인어 아가씨》로 유명해짐.	

연대	나이	안데르센의 생애와 업적	생애와 업적
1840	35	산문 시집으로 유명한 《그림 없는 그림책》을 완성.	
1845	40	《미운 오리 새끼》 《성냥 파는 소녀》 등을 씀. 가을에 세 번째로 이탈리아 여행을 했으며, 피레네 산중에 있는 여관에서 《자서전》을 집필. 베를린에서 독일의 동화 작가 그림 형제와 사귄다.	
1855	50	50세 탄생을 기념하여서 전에 쓴 《자서전》을 보충해서 출판. 이 무렵, 그의 동화는 15개 국어로 번역되어 세계 여러 사람들로 부터 호평을 받음.	
1861	56	네 번째 이탈리아 여행 중 요나스 코린의 사망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귀국.	
1867	62	국왕으로부터 추밀 고문관의 칭호를 받음.	
1875	70	세계 각국으로부터 생일을 축하받음. 이 때는 쇠약하여 병상에 누워 있었음. 8월 4일, 많은 사람의 애도 속에 영면.	

학 습 인명 사전

감 수/ 심경석(아동문학가 · 서울 명일국민학교 교장)

〈무순〉 김종상(아동문학가 · 서울 유석국민학교 교감)

도재희(아동문학가 · 전 서울 한양국민학교 교감)

김일환(아동문학가 · 전 서울 연동국민학교 교사)

최영재(아동문학가 · 서울 구룡국민학교 교사)

● 멘 델	162
● 멘델스존	169
● 모 네	174
● 모딜리아니	177
● 모리아크	179
● 모 방	181
● 모 세	183
● 모 스	185
● 모차르트	192
● 모파상	194
● 몸	198
● 몽고메리	200
● 몽테뉴	202

※ 이 인명 사전은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인명을 중심으로 해서 엮었습니다. 본 전집의 본문에서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각 인물의 연대별 사실과 나이의 관계는 만(滿)으로 생하여 통일하고, 생물 연대 등에 대해서는 세계 인명은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을, 한국 인명은 《국어 대사전》(이희승 편), 《한국 인명 대사전》(신구 문화사 간)을 따랐음을 밝혀 둡니다.



멘델 (1822~1884)

— 유전학의 아버지 —

사람들은 얼굴이 어머니를 닮았다든가, 성질이 아버지와 꼭 같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은 어버이가 지니고 있는 모습이나 성질을 이어받아 그 아들, 손자에게 차례로 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가를 실험으로 분명히 밝혀서 하나의 법칙으로 세운 사람이 그레고어 요한 멘델이다.

멘델은 1822년 7월 22일, 당시 오스트리아령이었던 슬레지엔 지방의 하인체도르프라는 산마늘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중앙 슬레지엔의 오드리 근처에 있는 하인치체이다.

아버지 안톤은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부였다.

그는 과수의 접붙이기나 품종을 개량하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어린 시절 멘델도 아버지와 함께 과수원에서 일하기를 좋아했다.

아버지 안톤은

“요한은 장차 훌륭한 농부가 될 게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 로지나는 머리가 좋은 요한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었으므로, 학교에 보내자고 남편을 설득했다.

그래서 멘델은 12세 때, 마을에서 36킬로미터 떨어진 트

로파우 학교에 입학했다.

양친은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멘델에게 학자금을 보내 주기 위해서 늘 고생을 했다.

그런데 멘델이 17세 때, 아버지가 크게 부상을 당해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는 고학으로 나머지 학업을 마쳤다. 그러나 다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철학 공부를 해야만 했으므로, 그는 올뮌츠 고등 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집안이 워낙 가난했으므로, 그의 희망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았다. 이 때, 누이동생인 테레지아가

“오빠, 이 돈으로 오빠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세요.” 하고 말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결혼 준비금을 오빠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해서 멘델은 올뮌츠 고등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



는데, 졸업할 때까지의 2년 동안은 가정 교사 등을 하면서 어려운 학업의 길을 뚫었다.

어느 날, 멘델은 물리 선생인 프리드리히 프란츠에게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 상담을 하였다. 프란츠 선생은 멘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되면 어떨까 하고 권유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식생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좋아하는 학문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마침 그 때, 브르노 시에 있는 성 토마스 수도원에서 사제 후보자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멘델은 학교를 졸업하고 즉시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되기로 했다. 그레고어라는 세례명은 신부가 된 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는 거기에서 신부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면서 틈만 있으면 뜰에 나가서 식물 재배에 시간을 소비했다. 수도원에는 식물 표본이나 서적 등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그가 원하면 얼마든지 연구에 정신을 쏟을 수 있었다.

드디어 신부가 된 그는 츠나임 고등 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신부라는 성직이 성격에 맞지 않았다. 원장은 그가 학자로서의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자, 훌륭한 학자로 길러 보려는 생각에서 수도원의 비용으로 1851년에 빈 대학에 보냈다.

멘델은 빈 대학에서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식물 분류학이었다.

1853년까지 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멘델은, 브르노 시에 있는 실업 고등 학교의 자연 과학 교사가 되어, 수도원에서 학교로 통근했다.

멘델이 수도원의 정원에 천 그루나 되는 완두콩을 재배하여, 그것을 재료로 삼아 유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다.

그 무렵, 멘델은 다윈이 저술한 《종의 기원》을 읽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유전에 대한 연구가 생물 진화의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서로 다른 형질의 식물을 꽃가루받이시켜서 잡종을 만드는 실험은 독일의 퀴르이터(1733~1806)가 처음 성공했는데, 멘델이 연구를 시작한 무렵까지는 양친의 성질이 잡종에 어떻게 이어받아지며, 또 그것이 잡종의 자손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멘델은 순종 완두콩을 가지고 그 모양, 빛깔(씨앗이나 콩꼬투리 등)의 특징과, 줄기의 길고 짧음을 구별하여 일곱 가지 성질을 선택해서, 그것이 잡종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관찰했다.





그리고 잡종 제 2 대를 자기 꽃가루로 수정을 시켜 보았더니, 열성에서는 열성의 성질을 지닌 것만이 나타났으며, 우성의 경우는 3분의 1은 우성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만들었고, 나머지 3분의 2는 잡종 제2대 때와 마찬가지로 우성과 열성이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멘델은 8년 동안 실험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학적인 이론을 만들어 내어, 마침내 1865년, 브르노 자연 연구회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보고는 이듬해 《브르노 자연 연구회 회보》에 실려서 유럽 각 지방의 학자들에게 배포되었다. 그러나 멘델 법칙이라 불리는 이 대발견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빛을 보지 못하다가, 그가 죽은 뒤인 1900년에야 인정을 받게 됐다.

먼저, 완두콩으로 실험을 시작하였다. 잡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꽃의 꽃가루를 암꽃에 묻히면 되는데, 그 꽃가루를 벌레나 바람이 제 멋대로 날라 온다면, 생겨난 잡종의 양친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밭에 나가 핀셋을 사용하여 꽃가루를 암꽃에 옮겨 주고, 그것에 주머니를 씌워 다른 꽃가루가 묻지 않도록 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씨앗을 다시 뿌려 길러 보니, 그 자식들(잡종 제 1 대)은 모두 키가 큰 것만 나타났다.

그래서 양친이 제각기 지니고 있는 한 쌍의 성질 속에는 잡종 제 1 대에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 표면에 나타나는 성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는 성질을 열성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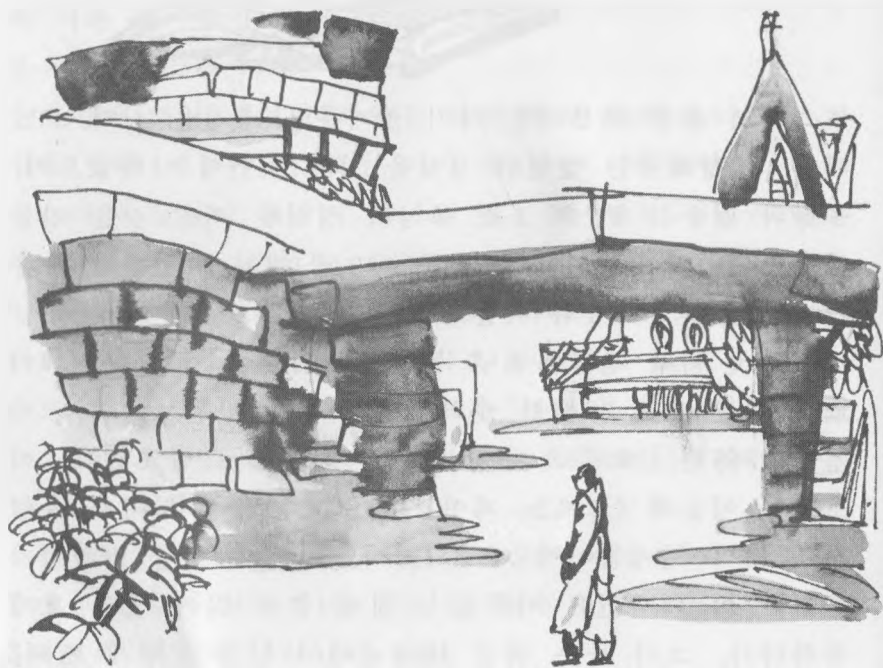
또 씨껍질이 흰 것과 잿빛 또는 갈색의 것은 빛깔이 있는 것이 우성이며, 콩고투리 빛깔이 초록색인 것과 노란색인 것은 초록색이 우성이었다.

다음에 잡종 제 1 대를 자기 꽃으로 수정을 시켜 잡종 제 2 대를 만들어 보았더니, 우성인 것과 열성인 것이 대체로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다.

1868년, 멘델은 브르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는데, 1872년에 정부가 수도원에도 재산세를 물린다는 법령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여 정부와 맞섰다. 그러나 결국 멘델이 저서 재산을 차압당했다. 게다가 만성 신장염까지 생겨 1884년 1월 6일,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16년이 지난 1900년에 독일의 코렌스, 네덜란드의 후고 드 브리스, 오스트리아의 에리히 체르마크 등의 세 학자가 멘델과 거의 같은 실험을 되풀이해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재발견했으므로, 드디어 '유전학의 아버지'로서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받게 되었다.

생전에 그가 살았던 성 토마스 수도원에는 멘델의 상(像)이 있으며, 오늘날 그 일대는 '멘델 광장'이라고 불리고 있다.





멘델스존 (1809~1847)

— 낭만과 음악의 작곡가 —

천재 음악가 야코브 루트비히 펠릭스 멘델스존은 1809년 2월 3일,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부유한 은행가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철학자였고, 아버지는 유능한 은행가였으며, 어머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훌륭한 여성으로 피아니스트였다.

어머니는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과 연극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멘델스존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멘델스존이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은 이런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멘델스존은 매우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연극을 좋아하는 누나 파니와 함께 일찍이 음악에 천분을 보였다.

멘델스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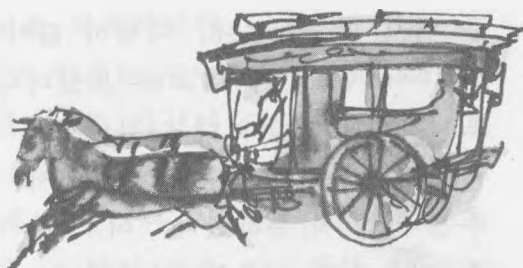
그가 두 살 때,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이 독일에 침입하여 함부르크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일가는 베를린으로 옮겨 갔다. 베를린의 저택에는 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멘델스존에게는 유리한 가정 환경이었다고 하겠다. 양친은 그를 음악가로 출세시키려고, 칠터와 베르거라는 두 사람의 훌륭한 음악가를 모셔다가 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그의 재능은 무럭무럭 자라나, 9세 때는 연주회에 나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

11세 때에는 벌써 작곡을 하였으며, 15세 때에는 2편의 가곡과 5편의 합주곡, 그 밖에 실내악곡과 독주곡을 몇 곡이나 작곡하였다.

어린 시절의 멘델스존에 있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최대의 존경을 받고 있던 문호 괴테 앞에서 연주를 하여, 그로부터 크게 칭찬과 사랑을 받은 일이다. 괴테는 말쑥한 귀공자인 멘델스존을 한 번 본 뒤로



매우 사랑하게* 되어,
곧잘 불러다가 연주를
시키곤 했다. 그는 모
차르트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멘델스존을 사
랑했다고 한다.



15세 때 작곡한 《교향
곡 제 1 번》을 비롯한 몇
편의 작품은 어느 것이
나 모두 훌륭했다. 그
당시 15세 된 소년이
작곡한 것이라고는 믿어
지지 않을 만큼, 이미
천재로서의 소질을 훌
륭히 나타내고 있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음
악가로서 세상에 나설
결심을 하고, 더욱 교
양을 쌓기 위해서 베를
린 대학에 들어갔다.

이어 17세가 되던 해에, 셰익스피어의 작품 《한여름 밤의
꿈》에 붙인 서곡을 작곡할 정도의 솜씨를 보여 주었다. 이
곡은 17년 후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부
탁을 받고 완성했다.

멘델스존은 《한여름 밤의 꿈》을 친구 집에서 열린 음악회
에서 연주하여 매우 칭찬을 받았는데, 그 때 악보를 마차
에 둔 채 내려 잃어버렸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다시 악보

를 써서 연주했는데, 다행히 잃어버렸던 악보를 되찾게 되어 후에 쓴 것과 비교해 보았더니,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도 틀린 데가 없었다고 한다.

1829년, 멘델스존은 세상에서 잊혀져 가던 명곡 《마태 수난곡》을 연주하였다. 이 곡은 바흐가 1750년에 사망한 후 처음으로 연주된 것이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잊혀져 있던 바흐의 위대함을 세상 사람들이 다시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멘델스존의 큰 공적의 하나이다.

멘델스존은 여행을 좋아해서 1829년부터 1832년에 걸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했다. 그리고 이들 아름다운 풍경을 통하여 받은 감명을 음악으로 나타냈는데, 서곡인 《핑갈의 동굴》《스코틀랜드 교향곡》《이탈리아 교향곡》은 모두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음악이다.

그리고 특히 런던에서는 자작곡인 《한여름 밤의 꿈》과 《교향곡 제1번》을 연주하여 대단한 평가를 받았다. 독일보다도 영국에서 크게 환영을 받은 그는, 그 후 9회에 걸쳐 런던으로 나가 연주를 했다.

이 무렵부터 그의 생활은 아주 바빠졌다. 작곡가, 지휘자, 피아니스트로서 제일급의 대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24세 때인 1833년에 뒤셀도르프 시의 음악 지휘를 맡게 되었고, 이듬해인 1834년에는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의 지휘자가 되어, 슈만 등과 함께 낭만파 음악 운동을 힘차게 이끌고 나갔다.

1837년에는 프랑스인 목사의 딸 세실 장르노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 생활 속에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1841년에는 베를린 예술 대학의 교수로 초대를 받았다. 그 때, 그는 라이프치히에 음악 학교를 세우려 하고 있었

으므로, 3년 동안 두 도시를 왕복하였다.

1843년, 라이프치히 음악 학교는 슈만 등 훌륭한 음악가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멘델스존 자신이 교장이 되어 개교했는데, 이 학교는 유럽 음악의 중심이 되었다.

1845년에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작곡에 전념하여,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과 그 밖의 곡을 작곡했다.

1847년 5월 14일, 사랑하는 누이 파니가 죽음으로써 멘델스존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 온 때문인지 6개월 후인 11월 4일, 라이프치히에서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멘델스존은 젊었을 때부터 완전한 작품을 썼으며,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니는 음악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작곡하였다.

그는 낭만파에 속하는 작곡가이지만, 고전파적 절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고전주의적 낭만파 작곡가라고도 불린다.

멘델스존이 그린 수채화(위)와 집필 악보





모 네 (1840~1926)

— 인상파의 개척자 —

빛과 색채를 함께 살려 그 순도(純度)를 높임으로써 빛깔의 미묘한 변화를 충실히 재현한 프랑스의 화가 클로드 모네는 1840년 11월 4일에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가 5세 되던 해에 그의 집이 르아브르로 옮겨 가게 됨으로써 그는 15세까지 그 곳에서 살았는데, 그 때 전람회를 연 것이 계기가 되어 당시의 유명한 풍속 화가 우제누 부댕과 알게 되었다.

모네는 부댕으로부터 그림을 집 밖에서 그릴 것을 권유 받고,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나중에 시험삼아 제작해 보고는 크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1859년, 19세가 된 모네는 정식 화가가 되기 위해 파리로 가서 아카데미 슈이스 미술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는 그 곳에서 피사로와 알게 되었고, 쿠르베 등의 사실주의 화가들과도 접근하게 되었다.

이듬해, 모네는 병역 때문에 공부를 중단했으며, 병역을 마친 1862년부터는 실험과 여행을 계속하여 많은 화가들과 사귀게 되어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이 일어나자 네덜란드를 거쳐 런던으로 피난한 그는, 그 곳에서 영국의 화가 터너의 영향을 받아 더욱 명쾌한 색조를 연구하여, 순수색을 사용함으로써 신선한 색채감을 발견하고, 친구 피사로와 함께 자연의 외광(外光) 묘사에 힘썼다.

모네는 빛과 공기와 색채로 몽상적이고 매혹적인 그림을 그렸으며, 또한 여러 곳을 두루 여행한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그림에 자연의 다양성을 가미, 한층 돋보이게 하였다.

1874년, 파리로 돌아온 모네는 그의 동료들과 전람회를

가졌다. 그 때 출품한 《인상 — 해돋이》라는 그의 작품은 비평가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를 포함한 그들 동료들은 그 때부터 인상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인상파 화가들은 그림을 그림에 있어 나뭇잎 하나하나의 뚜렷한 모양보다도 쉼 새 없이 변하는 빛과 공간과 색채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가장 짙은 그림자나 음울하게 흐린 날 풍경이라도 색채는 무한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시각을 기초로 했다.

‘색채는 빛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하며, 사물 그 자체에 고유색은 없다.’

라는 말은 모네가 주장하고 실천한 이론이다.

《인상 — 해돋이》 이 작품의 제목으로부터 인상파라는 명칭이 생겼다.





모딜리아니 (1884~1920)

— 날카로운 감각의 화가 —

화가이자 조각가인 아메도 모딜리아니는 이탈리아의 리보르노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는 베네치아의 미술 학교에 다니다가 1906년 파리로 나가 몽마르트르에서 살았으며, 그 후 몽파르나스로 이주했다.

모딜리아니는 처음에는 조각을 시도하여, 초상 조각의 선구자인 브랑쿠시의 영향과 흑인 조각의 감화를 받아 이탈리아 조각과 비잔틴 예술의 성격을 근거로 하여 예리한 조형 감각을 나타냈으나, 그 후 화가로 전환하였다.

화가로 전환한 모딜리아니의 감성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후기 인상파의 한 사람인 세잔이다.

모딜리아니는 세잔의 그 약간 흐리고 반투명적인 기법에 자신의 독특한 윤곽을 사용하여, 강렬한 인상이 하나로 통일되는 작품을 그려 냈다.

모딜리아니의 작품에는 인물을 주제로 한 것이 많은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친구들의 초상을 즐겨 그렸고, 사람의 얼굴이 갖는 무한한 다양성과 수많은 유형의 표정과 개성, 그리고 나부(裸婦)의 곡선 등을 절묘한 구도와 참신한 시각으로 표현하였으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좋아하여 자기 세계로 끌어들이었다.

1910년에 잠깐 고향에 다녀온 것 외에는 줄곧 파리에서



모리아크 (1885~1970)

— 신의 은총을 그린 작가 —

프랑수아 모리아크는 프랑스의 작가로서 카톨릭 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 신의 은총 등을 소재로 한 많은 소설, 시, 희곡, 평론 등을 남겼다.

모리아크는 1885년 10월 11일, 보르도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엄격한 카톨릭 교도인 어머니에 의하여 양육되어, 그의 작품에 언제나 흐르는 종교적인 면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카톨릭 학교를 마치고 보르도 대학에서 문학 수업을 한 뒤, 그는 작가가 되기 위해 1906년에 파리로 갔다.

1909년에 최초의 시집을 출판하였고, 1911년에 다시 시집을 냈다.

그러나 그를 일약 유명하게 만든 것은 1922년에 발표한 소설 《문둥이에의 입맞춤》이었으며, 1923년에는 《제니 트릭스》, 1925년에는 《사랑의 사막》, 1927년에는 《테레즈 데케이루》 등을 계속 발표하여 국제적인 작가가 되었다.

모리아크의 작품의 주제는 신의 은총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데 있으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나쁜 사람들에게도 신의 은총은 깃들인다는 데에 있다.

모리아크는 1933년에 프랑스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소설 외에도 시집, 전기, 종교 에세이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생활한 모딜리아니는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건강을 해쳐 1918년 요양을 떠났으나, 그의 애인이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 이듬해 겨울 폐결핵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920년 1월 25일, 36세의 짧은 일생을 마치고 말았다.

날카로운 감각과 깊숙이 깔린 애조를 특색으로 하며, 두터운 마티에르와 힘찬 묘선, 그리고 깊은 색감 등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는 모딜리아니의 그림들은, 그가 살아 있을 때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아서 명성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화단의 인정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그의 말년의 작품들 중 《노란 스웨터》《큰 나무》 등은 너무도 높은 수준의 작품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으며, 또한 인물화에 있어서 가늘고 긴 목이나 달걀 모양의 얼굴을 섬세한 선으로 그려 독특한 아름다움과 기품을 나타낸 점을 인정받게 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정치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에스파냐 내란 때는 프랑코 장군의 난폭한 행동을 규탄했다.

2차 대전이 일어나 프랑스가 독일의 점령하에 있을 때, 그는 포레즈라는 필명으로 저항 운동을 지지하는 글들을 쓰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모리아크는 신문에 정치적인 글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했다. 소설, 희곡, 평론, 회고록, 일기 등 그의 저작은 모두 60권이 넘는다.

1952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고, 1958년부터는 드골 정부를 열렬하게 지지하기도 했다.

그는 1970년 9월 1일, 파리에서 긴 생애를 마쳤다.

소설에는 그의 소년 시절의 고향이 무대가 되어 나오며, 신의 은총을 바라는 마음과 죄와의 '충돌이' 시적인 필치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인간 심리의 예리한 통찰도 뛰어나, 현대의 가장 뛰어난 작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모 방 (1803~1839)

— 한국에 처음 온 서양 신부 —

피에르 필리베르 모방은 프랑스의 천주교 신부로서, 서양 신부로는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전도하다가 순교하였다.

1801년(순조 1)의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辛酉迫害) 이후 우리 나라 천주교도의 열렬한 신앙심이 로마 교황청에 알려졌는데, 이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6세는 1831년(순조 31)에 조선 교구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파리 외방 전교회(外邦傳教會)에 조선 교구의 교회 사업을 담당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 때, 외방 전교회 소속으로 중국에 와 있던 모방은 조선 교구의 초대 주교로 임명된 브뤼기에르를 따라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 압록강까지 왔으나, 감시가 삼엄하여 입국하지 못하고 마가자(馬架子)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때 브뤼기에르 주교는 병을 얻어 죽고 말았다.

1835년(헌종 1) 겨울, 모방은 사탕에 상복(喪服) 차림을 하고 홀로 압록강 얼음 위를 건너 입국했다. 그 뒤, 신자 정하상(丁夏祥)의 안내를 받아, 1836년 1월 무사히 서울에 들어와 전교에 힘쓰니, 6천 명 가량이던 신도의 수가 9천 명으로 증가했다.

그 뿐만 아니라, 모방은 앞서 들어와 있던 중국인 신부 유방제(劉方濟)와 상의하여 김대건(金大建), 최양업(崔良



業), 최방제(崔方濟) 등 세 소년을 마카오에 있는 아오먼 신학교(澳門神學校)에 유학시키는 등 조선 교구의 교세 확장에 힘썼다.

1837년, 제 2 대 조선 교구장으로 임명된 앙베르 주교와 샤스탕 신부가 건너오자, 모방은 이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전국적인 교세 확장을 위하여 더욱 분투하였다.

이렇게 점점 천주교의 세력이 확대되자, 조정에서는 이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천주교 박해의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1839년, 천주교도에 대한 전국적인 박해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이 기해박해(己亥迫害)이다. 모방은 충청도 홍주(지금의 홍성)에서 체포되었고, 다른 2명의 프랑스 신부 및 많은 국내 신도들과 함께 한강가 새남터에서 목이 잘리고 말았다.

그 후 1925년 7월 5일, 로마 교황 비오 11세로부터 복자위(福者位)에 올림을 받았으며, 1984년에 성인에 올랐다. 한국명은 나백다록(羅伯多祿)이다.



모 세 (기원전 13세기경)

—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

모세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이자 헤브루 민족의 영웅이다. 이스라엘 종교에 의하면, 신의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졌다고 한다.

모세는 헤브루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헤브루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헤브루의 세력이 커지는 걸 두려워한 이집트 왕은, 헤브루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곧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상



자 속에 넣어져 몰래 나일 강에 버려졌다. 그런데 이집트 여자에게 발견되어 왕의 집안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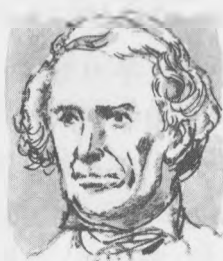
모세가 자신이 헤브루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모세는 같은 헤브루 민족인 노예를 확대하는 이집트를 떠나, 시나이 반도의 동쪽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지방의 사제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

어느 날 양을 몰고 시나이 산에 갔을 때, 산기슭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다. 그 때, 나무가 타는 불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집트에 돌아가서 가나안 동포를 구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기원전 13세기 말, 즉 이집트 제 19 왕조 람세스 2세 때, 이집트의 노예였던 동족 헤브루 사람들을 탈출시켜 시나이 산으로 데려갔다. 3일 후, 그 시나이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신이 모세에게 율법을 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10계이다. 10계는 이스라엘의 종교 및 생활의 기본이 되었다.

모세는, 조상과 언어를 같이하는 헤브루 사람들을 집결시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했고, 여호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민족 의식으로 그들을 통합하였다. 모세 일행은 황야를 방랑하다가 마침내 요르단 근처에 있는 모아브에 도착했다.

그러나 모세는 신의 계시에 따라 요르단 강을 건너지 않고 네보 산에 올라가,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득히 바라보이는 그 산 위에서 죽었다. 그 때 나이 120세였다고 한다. 남은 사람들은 한 달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한 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인도되어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모 스 (1791~1872)

—전신기를 발명한 사람—

전신기를 발명한 새뮤얼 파인리 브리즈 모스는 1791년 4월 27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찰스타운이란 곳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제디다이아는 조합 교회 목사이며 지리학자였다. 모스는 교양 있고 윤택한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랄 수 있었다. 게다가 그는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도 잘 했으며, 특히 그림 솜씨가 아주 뛰어났다.

모스는 14세 때 예일 대학에 들어가 좋아하는 전기학에 열중한 한편, 그림도 열심히 그렸다. 예일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과학자가 될 것인가 예술가가 될 것인가에 대해 한동안 생각하며 망설였다. 그러나 드



디어 화가가 될 결심을 하고 말았다.

모스는 고향으로 돌아와 서점에서 일하면서 부지런히 그림을 그렸다. 아버지는 모스가 화가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모스가 그린 그림이 유명한 화가인 엘스튼과 길버트 스튜트에게서 인정을 받은 후로는 하는 수 없이 화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드디어 1811년 20세 때, 모스는 영국으로 건너가 미술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웬만큼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재능을 닦아, 그가 낸 작품이 드디어 왕립 미술원이 개최하는 전람회에서 입선했다.

이어 회원으로서 추천을 받았으므로, 신진 화가인 모스의 이름은 갑자기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영국에 온 지 4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래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보스턴에 화실을 마련하고 화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림만 그려서는 좀처럼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825년 11월에 미술 학교 교장으로 추천을 받아, 비로소 오랫동안 어렵게 살아 오던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원래 역사화에 재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서 팔리는 그림은 주로 초상화여서, 하는 수 없이 그도 초상화를 그리다가 3년쯤 후에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옮겨 역시 초상화가로서 생활을 유지해 갔다. 그 곳에서의 수입은 전보다 조금 나아진 편이었으므로 약간의 저축도 할 수 있었다.

겨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그에게 다시 불행한 일들이 겹쳐 일어났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내가 사망한 데 이어, 고향에 있던 양친이 차례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계속되는 불행에 모스는 마음 붙일 곳을 잃었다. 그는 1829년 다시 미국을 등지고 유럽으로 건너가, 3년 동안 방랑의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1832년 10월 어느 날, 프랑스의 르아브르 항구



에서 뉴욕으로 가는 기선 설리 호에 올라탔다.

이 항해가 뜻하지 않게도 그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전신기를 발명해 보려고 마음먹은 것이 바로 이 설리 호에서였기 때문이다.

이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다.

때마침 이 배에는 미국의 전기 학자인 찰스 잭슨이 함께 타고 있었다. 그는 식사 후의 여흥으로 선객을 모아 놓고, 파리에서 가져온 전자석으로 실험을 해 보였다.



“이건 영국의 스타존이 발명한 전자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선(銅線)을 감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쇠불이는 즉시 전자석이 됩니다. 보세요, 쇠가 달라붙잖아요? 전류를 끊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디의 쇠불이로 돌아가서 쇠가 달라붙지 않지요.”

이 때, 모스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전자석을 이용해서 먼 곳에 신호를 보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갔다.

‘전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전선을 흐른다. 만약 무슨 방법으로든지 전류를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전류를 써서 먼 곳에 빠른 속도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류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석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본디 전기를 좋아한 모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자, 즉시 어두컴컴한 선실에 틀어박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스케치북에는 그림 대신 전신 장치의 설계도와 이상한 부호, 숫자 등이 가득히 적히게 되었다. 그리고 배가 뉴욕에 닿았을 무렵에는, 그의 얼굴은 넘쳐 흐를 듯한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설리 호의 선장과 이별의 악수를 나누면서 모스는 자랑스럽게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전신기가 발명되었다는 말을 들으시면, 그 발명은 이 설리 호에서 탄생했다는 걸 상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으로 돌아온 모스는 화가로서의 명성이나 지위를 버리고, 전보다 더욱 심한 가난과 싸우면서 전신기의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끼니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실험 도구를 살 수 없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모아다가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자석 같은 것은 근처에 있는 대장간에 가서 말발굽 모양의 연철봉을 얻어다가 만들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대학 시절 친구인 뉴욕 대학의 게일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그는 어느 새 전기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친구인 공장주 베일도 많은 협력을 해주었다.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로, 모스는 1835년에는 실험실 안에 연결해 놓은 전선을 통해서 간신히 통신을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곤란한 것은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신호가 도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다. 전류가 흐르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철사의 저항이 강해지므로, 전신기의 전류가 약해지면 전자석의 철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냈다.

그런 끝에 드디어 계전기(繼電器)를 만들어 냈다.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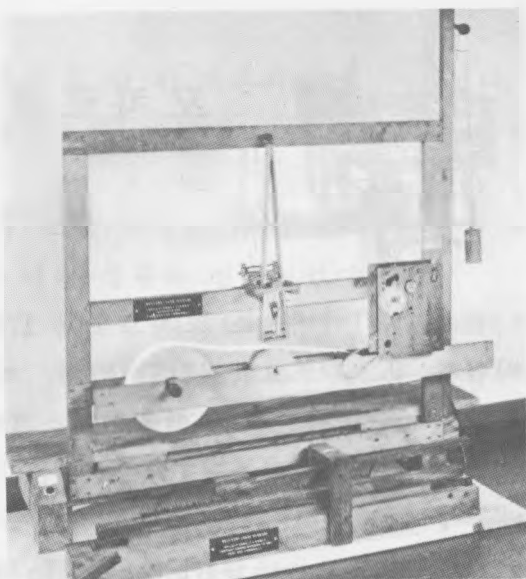
은 어떤 전류가 수신기에 도달하는 도중에 약해지면, 다른 전지에서 새로운 전류가 생겨 수신기에 흐르도록 장치한 것이었다.

마침내 1837년, 연구를 끝낸 모스는 뉴욕 대학의 회의실에 51미터나 되는 전선을 쳐 놓고 많은 사람이 모인 앞에서 실험을 하였다. 결과는 훌륭한 성공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오늘날의 모스 부호를 생각해 냈으므로, 이제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실용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었다.

모스는 전신기를 실용화하기 위해서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에 전신줄을 연결하기 위한 보조금을 내어 달라고 의회에 신청하였다. 모스의 전신기에 대하여 크게 칭찬하던 의원들도 처음에는 3만 달러라는 거액의 요구에 아연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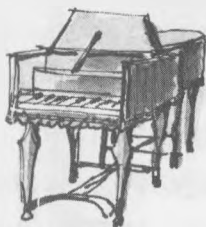
모스가 1837년에 만든 전신기

그러나 1843년에 드디어 의회로부터 보조금이 나왔다. 가난과 싸우며 연구를 계속해 온 모스는 그제야 자신의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을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의 전선 개통식은 1844년 3월 24일 국회 의사당에서 거행되었다. 많은 구경꾼들에 둘러싸인 모스는 전신기 앞에 서서 세계 최초의 전신을 보냈다. 이 때 보낸 전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하느님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이 때, 그의 나이 53세였다. 그 후, 1850년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세계 최초의 해저 전선이 도버 해협을 통해 부설되었다. 유럽의 각 대학은 모스에게 학위를 수여했고, 그는 온 세계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통신망의 발전상을 눈앞에 보면서, 빛나는 명성 속에 1872년 4월 2일, 뉴욕에서 81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



모차르트 (1756~1791)

— 천재적 음악가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궁정 전속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작곡가였다.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음악의 재능을 보여, 3세 때, 누이 마리아 안나가 아버지에게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

소년 시절의 모차르트



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재치 있게 화음을 연주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차르트가 4세가 되었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5세 때에는 이미 소곡(小曲)을 작곡할 정도의 신동이었다.

1762년, 아버지는 6세의 아들 모차르트와 11세 된 안나를 데리고 먼저 뮌헨으로, 이어서 빈으로 연주 여행을 하며 궁정 등에서 연주를 시켜 호평을 받았다.

아버지는

“여덟 살짜리 아이가 마흔 살 된 어른의 능력을 가졌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차르트의 재능에 대해 칭찬하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리하여 모차르트의 소년 시절은 누이 안나와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 여행 생활의 연속이었다.

1768년 1월에는 빈 궁정에서 여제(女帝) 마리아 테레시아 앞에서 연주를 했고, 궁정의 부탁으로 오페라 부파(익살과 풍자적인 줄거리를 가진 오페라, 희가극)를 처음으로 작곡했다.

1769년에는 13세라는 어린 나이로 잘츠부르크의 궁정 음악가가 되었으며, 14세 때에는 이탈리아로 연주 여행을 떠나,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금 박차(黃金拍車) 훈장을 받기도 하고, 볼로냐에서 아카데미아 필라르모니카의 입회 시험에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어로 오페라를 작곡하여 연주하기도 하였다.

1782년 빈에서 콘스탄체 베버와 결혼하여 그 때부터 빈은 모차르트의 고향이 되었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 곳 빈에서 생활했다.

1786년에는 가극 《피가로의 결혼》을 겨우 6주 만에 완성하였으며, 1791년에는 쇠약해진 몸을 채찍질하여 최후의 가극 《요술 피리(魔笛)》를 완성하였다. 그는 《진혼곡(레퀴엠)》을 작곡하기 위해 마지막의 힘을 짜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1791년 12월 5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모차르트의 작품은 쾨헬이라는 사람이 정리하여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작품 번호 앞에 K자가 붙는다.



모 파 상 (1850~1893)

— 자연주의 문학의 작가 —

《여자의 일생》으로 대표되는 기 드 모파상은 1850년 8월 5일, 프랑스의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에 있는 미로메닐 성에서 태어났다(혹은 페캉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그의 가정은 귀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부유한 집안이었으나, 모파상이 12세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불행하게도 합의 이혼을 하였다.

아버지의 성격이나 일상 생활의 태도는 《여자의 일생》에 나오는 쥘리앙을 닮았다고 하며, 어머니는 잔의 모델이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또한 이 작품 속에 전개되는 가정 생활은 모파상 자신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관찰한 것이라고 한다.

모파상은 소년 시절의 대부분을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는 어머니의 별장에서 지냈다. 그리하여 바닷가의 바위 사이며 낭떠러지며 모래톱에서 뛰어 놀았고, 낚시질을 하거나 헤엄을 치거나 뱃놀이를 하면서 풍부한 자연을 마음껏 즐겼으며, 특히 농부나 어부의 아이들과 어울려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농부와 어부의 고장인 노르망디에서 어린 시절을 경험한 모파상은, 후에 고향의 어부나 농부들의 소박한 성격을 섬세하고 교묘하게 묘사하게 되었다.

모파상이 13세 되었을 때, 어머니는 그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브토 신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러나 장차 아들을 신부로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부근 일대의 귀족이나 지주의 자식들을 위한 중등 교육 기관이 바로 이브토 신학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를 사랑하며 항상 분방한 성격인 모파상은 규율이 엄격하며 라틴 어 공부에 시달려야 하는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으며, 사상이 온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2년 후에는 퇴학을 당했다. 이 사상이 온건하지 못하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1864년, 그가 14세 되던 여름에 에트르타 해안에서 영국 시인 스윈번과 알게 되었다. 그 후 1867년 17세 때, 그는 루앙에 있는 국립 고등 학교에 입학하여 소망에 따라 문학 수업을 했다. 여기에서 소설가인 귀스타브 플로베르를 알게 되었고, 시인 루이 부예와도 친교를 맺어 그에게서 시의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모파상에게 작가로서의 영향을 준 사람은 플로베르였다.

1869년에 모파상은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 파리로 나갔다. 그러나 1870년 7월, 보·불 전쟁(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 20세의 모파상은 유격대원으로 참전했다.

모파상은 비록 패전을 경험했으나, 이 전쟁을 통하여 깊은 반전 사상을 갖게 됨과 아울러 문학가가 되려는 결심을 굳혔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얻은 체험은 매우 큰 것이었으며, 그의 출세작인 《비계 덩어리》를 비롯해, 이 전쟁에서 취재한 중·단편 소설을 많이 남겼다.

1872년, 전쟁에서 돌아온 이듬해에 그는 해군성에서 근

무하는 한편, 파리에서 문학 수업을 계속했다. 1876년에 평론 《플로베르 론(論)》을 잡지에 발표했고, 졸라를 중심으로 한 자연주의 그룹에 참가했다.

1878년, 해군성에서 문부성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가난한 월급쟁이로서의 생활을 하였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문학 수업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무렵, 모파상은 플로베르에게 습작을 들고 찾아가 그의 지도를 받았고, 플로베르도 모파상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끈기 있게 그의 문학을 지도했다.

1880년에 졸라를 중심으로 한 신진 작가들이 전쟁에 관한 단편 소설을 모아 《메당의 밤》이라는 책을 냈는데, 모파상의 《비계 덩어리》를 여기에 실었다. 이 작품은 플로베르로부터 거장(巨匠)의 걸작이라는 절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작가로서의 결정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그 후 사망할 때까지 십여 년 동안의 짧은 작가 생활을 통해 약 3백 편에 달하는 뛰어난 작품을 발표하였다. 특히, 단편 작가로서의 그의 가치는 19세기는 물론 수백 년에 걸친 프랑스 문학의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혜성 같은 존재라고 평가되고 있다.

《여자의 일생》은 모파상이 처음으로 시도한 장편 소설로서, 모파상의 전 작품을 통털어 가장



결작으로 끝이며, 이 작품으로 그는 세계적인 작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소설은 1883년에 발표되었는데, 출판이 되자 그 해에 벌써 2만 부나 팔렸다고 한다.

그는 불행하게도 문단에 데뷔하기 전부터 신경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악화되어 1891년경부터는 발광의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고, 1892년 1월 1일 밤에는 자살을 꾀했으나 미수에 그쳐 파리의 정신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다.

1893년 7월 6일, 그는 혼수 상태에 빠진 채 회복을 보지 못하고, 두 명의 간호사가 지켜 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유해는 몽파르나스 묘지에 안장되었다.





몸 (1874~1965)

—예리한 통찰력의 작가—

영국의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윌리엄 서머셋 몸은 1874년 1월 25일, 아버지가 파리 주재 영국 대사관 고문 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파리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잃은 몸은 영국으로 보내어져,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13세 때 캔터베리의 킹스 학교에 입학하여 장차 아버지와 같은 성직자가 될 생각을 갖기도 하고, 1891년에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 의사가 될 결심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작가가 되려는 꿈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파리로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작가가 되기 위한 문학 공부를 계속하였다.

1897년에 첫 소설 《램

버드의 라이저》를 발표하고, 1907년에는 희곡 《프레더릭 부인》이 상연에 성공하여 차츰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 후, 1915년에 《인간의 굴레》, 1919년에 《달과 6 펜스》, 1928년에 《아센텐》, 1944년에 《먼도날》 등의 소설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또한 단편 《툼슨 양》이 1922년에 《비》라는 제목으로 연극화되어, 몸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1938년에는 《요약》이라는 수필집을 발표했는데, 그의 초기 생애를 이해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지침서 노릇을 하고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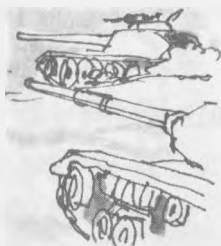
그 후 1948년에는 《세계 10대 소설》, 1949년에는 《작가의 수첩》, 1955년에는 《소설의 기법》 등 많은 소설론을 썼다. 이 밖에도 많은 평론집과 여행기가 있다.

그는 많은 인기를 누렸으나 적도 많았다. 그것은 실재 인물을 작품에 등장시켜, 경멸하기도 하고 놀려 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인물을 토대로 작품을 썼는데, 몸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작가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또한 《서클》 《높은 사람들》 등의 희곡에는 그의 기지와 유머가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풍속 희극의 새로운 전통을 세웠던 것이다.

의학적 태도로 인간을 진단하고 해부하는 듯한 작품을 시도하여, 현대 영국 문단뿐 아니라 세계 문단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몸은 1965년 12월 16일, 프랑스의 니스에서 눈을 감았다.



몽고메리 (1887~1976)

—로멜을 물리친 2차 대전의 영웅—

버나드 몽고메리는 영국의 장군으로서, 제 2 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의 유명한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로멜 장군을 격퇴했다.

1944 년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지휘했고, 전쟁이 끝난 후인 1946 년에는 영국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다.

몽고메리는 1887 년 11 월 17 일 런던에서 태어나, 세인트 폴 학교와 육군 사관 학교를 마치고 1908 년에 소위가 되었다. 제 1 차 세계 대전 때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3 년간 근무했는데, 두 번이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참모와 지휘관으로 여러 곳에서 그 임무를 다했고, 1937 년에 준장으로 진급하였다. 그 이듬해 소장이 되어 2 년 동안 팔레스타인과 트랜스요르단에서 근무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제 3 사단을 지휘했다. 1940 년 봄에는 덩커크 철수 작전을 수행했으며, 귀국해서 제 5 군단의 지휘를 맡았다.

1942 년 8 월 18 일, 몽고메리는 이집트에 주둔해 있던 영국 제 8 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10 월 23 일, 치밀한 전략을 세운 몽고메리의 제 8 군은 북 이집트의 알알라메인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과 이탈리아 군을 공격했다. 이때 독일의 로멜 장군은 그의 병력을 반이나 잃었다. 이로써 몽고메리는 독일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최초의 연합군

몽고메리 장군
1942년, 영국
제8군을 지휘
하던 당시의
모습이다.



장군이 되었고, 이 때의 공적으로 1942년 11월 10일, 당시 영국의 왕 조지 6세로부터 기사의 칭호를 받음과 동시에 대장으로 승진하였다.

1944년 6월 6일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리에 끝나자, 몽고메리는 8월까지 연합군의 모든 지상 작전을 지휘하였다. 이 해 9월 1일, 그는 원수로 승진했다.

1945년 5월 4일, 네덜란드와 독일 북서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이 드디어 몽고메리에게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독일 점령 영국군 사령관을 지냈으며, 1951년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군의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1958년 2월에 사임했다.

많은 전과를 올렸던 몽고메리는 《회고록》 등의 저술을 남기고, 1976년에 사망했다.



몽테뉴 (1533~1592)

—《수상록》을 쓴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에쥬 드 몽테뉴는 1533년 2월 28일, 프랑스 남부 보르도 근교의 몽테뉴 성에서 태어났다.

이 성은 보르도에서 포도주와 도료와 건어물 장사로 부자가 된 그의 할아버지가 1478년에 사들인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전쟁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이성을 확장하고 가꾸어 귀족 행세를 하며 살았다.

몽테뉴는 유아 시절부터 이웃 마을의 가난한 농사꾼의 아내에게 맡겨져 길러졌다. 그의 아버지가 농사꾼의 아내를 유모로 정한 것은, 몽테뉴로 하여금 장차 그가 지배할 농민들에게 친밀감을 갖게 하려는 특별한 뜻에서였다. 따라서 몽테뉴는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해 따뜻한 인간애를 갖게 되었다.

또 몽테뉴의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자,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던 라틴어를 배우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프랑스 말을 전혀 모르는 독일인 학자를 가정 교사로 맞아들여 라틴어를 가르치게 했다.

몽테뉴 앞에서는 그 부모를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성 밖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라틴어만을 쓰게 했기 때문에, 서투르나마 온 동네가 라틴어를 쓰는 것이 유행이 되다시피 했다. 그 결과 몽테뉴는 이미 6세 때 라틴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함으로써 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에 참가했을 때, 그 곳의 정열적이고 참신한 문예 부흥기 풍조를 받아들인 창조적 정신을 가지고 생활 개선에 힘쓴 진보주의자였다.

몽테뉴는 보르도의 기옌 중학에 들어갔으나 거의 배울 것이 없었고, 그 때 이미 라틴 고전을 탐독할 정도였다.

그는 툴루즈에서 또 보르도에서 법학을 배우고 나서, 페리과 지방의 재판소 고문관으로 있었는데, 이 재판소가 보르도 재판소에 합쳐지는 바람에 1557년 그 곳으로 옮겨 1570년까지 일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법률 운용에 많은 모순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보르도에서 동료 에티엔 드 라 보에티를 만나 절친한 사이가 되어, 아마도 인간으로서 느껴 본 가장 이상적인 우정을 경험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친구가 1563년에 요절





함으로써, 몽테뉴는 오랜 세월을 두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라 보에티를 읽은 슬픔을 잊기 위해 2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565년 7월 23일, 보르도 고등 재판소 판사의 딸 프랑수아즈 드 라 샤세뉴와 결혼했다. 그들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서너 명 태어났지만, 딸 레오노르만이 살아 남았다.

결혼한 해인 1565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넓은 영지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며, 아버지가 생전

에 명령했던 대로 에스파냐의 신학자 스봉의 《자연 신학》을 번역했다.

그는 점점 서재 생활을 즐기게 되어, 직장에 대해서는 의욕도 없고 싫증도 나서 1570년에 사퇴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성 3층에 있는 서재에 들어앉아 독서를 하거나 명상에 잠기고, 또한 독후감을 쓰며 지냈다.

그는 유전병인 담석증을 앓고 있었는데, 자연적인 치료 이상 좋은 약이 없다고 하여, 약 1년 반 동안 피레네 산중

의 온천과 또 다른 유명한 온천을 찾아다니며 치료했다.

그가 보르도에 돌아왔을 때, 시 의원들은 그를 시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당시의 국왕 앙리 3세의 간곡한 편지를 받고 시장이 될 것을 승낙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역임하던 시장직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그로서는 영광된 일이었다. 1583년 그가 다시 시장으로 재선된 것을 보면, 시민들에게 만족을 살 만한 일을 한 것 같다.

그는 《수상록》을 1580년에 제 1 판, 1582년에 제 2 판, 그리고 1588년에 더욱 증보하는 한편, 제 3 권을 첨가하여 냈는데, 이 책으로 그의 인기는 계속 올라갔다. 한편, 그의 추종자이던 마리 드 구르네 양을 파리에서 만나 수양딸로 삼았다.

당시 프랑스는 신·구 양교가 대립한 종교 전쟁으로 나라 안이 몹시 시끄러웠다. 1589년, 앙리 3세가 암살되고, 앙리 드 나바르가 그 뒤를 이었다. 몽테뉴는 앙리 4세가 된 나바르 왕의 부름을 받았으나 이를

《수상록》 초판의 속표지

ESSAYS

DE MESSIRE

MICHEL SEICNEVR DE

MONTAIGNE CHEVALIER

de l'ordre du Roy, & Gentil-homme
ordinaire de sa Chambre.

LE 2^U R. E S E C O N D.



A BOVRDEAVS.

Par S. Millanges Imprimeur ordinaire du Roy.

M. D. LXXX.

AVEC PRIVILEGE DV ROT.



사양하고, 자택에서 조용히 저술 생활을 하다가 1592년 9월 13일, 보람찬 생애를 마쳤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사회 인답게 살고, 그 내부에는 오직 자기만의 자아의 세계를 감추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작품을 통해서는, 사회인으로서의 나와 나 자신의 나는 서로 다른 존재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었다. 즉 사회와는 타협하며 살아가되, 자기 자신만의 유일한 세계는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평등 사상과 정의감은 순수한 인간성에서 나온 것이며, 동시에 르네상스

스 시대의 자유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몬테뉴는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모든 격정을 배격하고, 중용과 절도의 길을 권장했다. 결국, 그는 이성의 힘을 시인하며, 그것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자유가 방자함을 가져오지 않도록 중용을 권했다. 그는 실증적 사고 방식에서 물질주의로 타락하지 않고, 더 많은 선을 찾아 주려고 한 사람이었다.

학습 인명 사전 찾아보기 (숫자는 권수를 나타냄)

가리발디1	릴리엔탈8	사르트르14	악스선19	크롬웰26
간 디1	릴 케8	사마친14	완안선19	클레오파트라26
갈릴레이1	림 킨8	석가모니14	왕양명19	키에르케고르26
게이뤼삭1	마 네8	세네카14	왕 유19	키 초26
게 일1	마르코니8	세르반테스14	왕희지20	키 초26
고 갱1	마 설9	세 잔14	우타트20	킹26
고 야1	마젤란9	세익스피어14	울 프20	타고르26
고 츠1	마크 트웨인9	소크라테스15	워싱턴20	테니스27
궁 자1	마호메트9	솔로몬15	워즈워스20	토스카니니27
궁쿠르 형제1	막사이사이9	쇼 팅15	웰링턴20	토인비27
괴 테1	만9	순 자15	웰 스20	투스토이27
구텐베르크2	말 로9	슈 만15	위 고20	투르게네프27
그레섬2	매코믹9	슈바이처15	윌리엄 3세20	트루먼27
그림 형제2	맥아더9	슈베르트15	윌슨20	파가니니27
나세르2	멜서스9	슈트라우스15	윌 리21	파브르27
나이팅게일2	먼 로9	스위프트15	유 방21	파블로프27
나폴레옹2	멘 델10	스 토15	유 비21	파스칼27
난 셴2	멘델스존10	스트라빈스키15	유종원21	파스테르나크28
네 루2	모 네10	스티븐슨15	윌리엄21	파스퇴르28
넬슨2	모딜리아니10	(조지)15	이 백21	파운드28
노 벨2	모리야크10	스티븐슨15	이세민21	패러데이28
노 자2	모 방10	(R. L. B.)16	이 슌21	퍼킨28
누르하치3	모 세10	시벨리우스16	이흥창21	펄 벅28
뉴 턴3	모 스10	시 턴16	입 선21	페스타로치28
니 제3	모차르트10	실 라16	자멘호프21	포드28
다비드3	모파상10	쑨 원16	잔 다르크22	포 스트28
다 윈3	몰10	아르키메데스16	장 거22	포스터28
다 윌3	몽고메리10	아리스토텔레스16	장 자22	포크너29
단 테3	몽테뉴10	아문센16	장제스22	폴 로(마르코)29
드스토예프스키3	마 쉘11	아소카16	제 너22	푸슈킨29
도연명3	미추린11	아우구스티누스16	제파르22	푸치니29
돌 연3	미켈란젤로11	아이젠하워17	조이스22	푸 턴29
두 보4	밀 레11	아인슈타인17	조 토22	폴리처29
뒤 낭4	밀 턴11	아크라이트17	존 스22	프랑클린29
뒤 마4	바그너11	아펜젤러17	줄 라22	프로이트29
듀 이4	바울로11	안데르센17	주 공22	프뢰벨29
드 골4	바이런11	안젤리코17	주 네23	플라톤30
드보르자크4	바 호11	안진경17	주돈이23	플레밍30
플라크루아4	발레리12	안토니우스17	주원장23	플로베르30
드워시5	발자크12	알렉산더 대왕17	주 자23	플루타르크30
디 젤5	백거이12	알 렌17	줄23	피카소30
디즈니5	버뱅크12	앵베르17	중 자23	피타고라스30
디킨스5	베 델12	앙페르17	지23	하 디30
다이트 형제5	베드로12	애치슨17	지아코프스키23	하 일30
라파엘로5	베르디12	매틀리17	저 룬23	하 비30
러더퍼드5	베를렌12	앤더슨17	저 실23	하이네30
러 셀5	베를리오즈12	엘프레드 대왕18	체펠린23	하이데거30
레센스6	베살리우스12	아스퍼스18	체호프24	하이든31
레오나르도 다6	베시머12	양 건18	차츰코프스키24	하니발31
린치6	베토벤13	양 자18	청기즈 칸24	한 유31
렘브란트6	벨13	양 제18	카네기24	함무라비31
로 당6	보들레르13	언더우드18	카를루스 대제24	허 셉31
로렌스6	보 일13	에드워드 3세18	카루스24	학술리31
로시니6	보카치오13	에디슨18	카 워24	헤 겐31
록펠러6	보티첼리13	에머슨18	카이사르24	헤라클레이토스31
로 랑6	볼 타13	에 펠18	카알스25	헤로도토스31
로 웰7	볼테르13	예수 그리스도18	카트라이트25	헤르츠31
루트겐7	분 켄13	레이츠18	카프카25	헤밍웨이31
루빈스타인7	브라운13	오비다우스18	칸 트25	헤 세32
루 스7	(로버트)13	오 언18	케네디25	현 델32
루스벨트7	브라운(K.F.)13	오일러19	케말 파샤25	찰런 웰러32
루 터7	브라운(베르너13	오펜하이머19	케인스25	엘름홀츠32
르누아르7	폰)13	오렌리19	케플러25	호라티우스32
리 델7	브라크13	옥타비아누스19	코페르니쿠스25	호메로스32
리빙스턴8	브람스14	올 콧19	코 호25	호 손32
리스터8	브루투스14	올19	콜럼버스26	흑32
린 드8	비스마르크14	와 일드19	쿠베르탱26	휘트먼32
린네버그8	비 제14	와 토19	쿠26	흑32
린워탕8	빅토리아 여왕14	와 트19	퀴리 부인26	히포크라테스32

세 계 편/소년소녀

위 인 전 기

전 32 권



© KUM SUNG PUBLISHING CO., LTD. 1985 · 1987

개정신판 발행 1990년 4월 20일
개정중판 발행 1993년 6월 30일

회 장 김 나 준
발행인 이 보 환
발행처 (주) 금 성 출 판 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42의 63
등록 1965. 10. 19. 제 10-6 호
☎ (02) 713·9651~8 ☎ 121-022

인 쇄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삼화인쇄 주식회사
광명인쇄 공사
제 책 태성제책 주식회사
제 지 계성제지 주식회사

(본사는 출판윤리 강령을 준수함)

ISBN 89-07-00832-9
ISBN 89-07-90053-1 (세트)

소년소녀 위인전기 10 안데르센

권말 특집 부록 : 학습 인명 사전



ISBN 89-07-00852-9

ISBN 89-07-90053-1 (세트)